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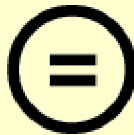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교육 방안 연구



2018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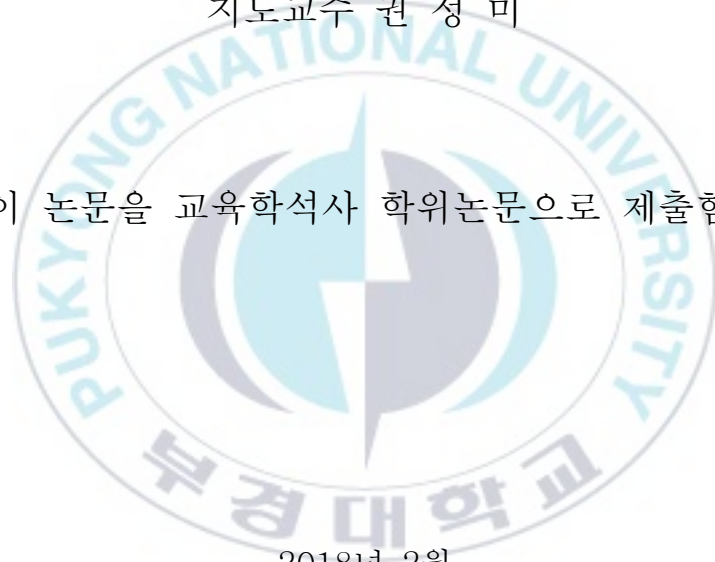
정 현 이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권 성 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정 현 이

정현이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11
가. 연구 대상	11
나. 연구 질문 및 방법	13
4. 논의의 구성	14
II. 한국어 ‘-에다가’의 의미에 대한 고찰	16
1. ‘-에다가’의 의미 분석	16
가. 사전 분석	16
나. 말뭉치 분석	27
2. ‘-에다가’의 의미 분류	33
가. 부사격 조사 ‘-에다가’	33
나. 접속 조사 ‘-에다가’	40
III. ‘-에다가’의 의미 분류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 선정	48
1. 선정 대상 및 방법	48
2. 의미 기능에 따른 대응 표현	53
가. 부사격 조사 ‘-에다가’	54
나. 접속 조사 ‘-에다가’	60
IV. 한국어 교재에서의 ‘-에다가’의 제시 양상	64
1. 분석 대상 및 방법	64
2. 분석 결과	65
V. 결론	70
1. 발견점	70
2. ‘-에다가’의 교수 방안	72
* 참고문헌	80

〈표 목차〉

〈표 1〉 연구사 검토를 토대로 분류한 ‘-에다가’의 의미	10
〈표 2〉 분석한 사전 목록	17
〈표 3〉 국어사전 4종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20
〈표 4〉 한국어사전 4종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24
〈표 5〉 8종 사전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중복도	25
〈표 6〉 꼬꼬마 말뭉치 파일 통계	27
〈표 7〉 ‘-에다가’ 품사별 용례 통계	28
〈표 8〉 부사격 조사 용례 통계	28
〈표 9〉 ‘-에다가’ 사용 빈도	29
〈표 10〉 표본 말뭉치 목록	29
〈표 11〉 ‘-에다가’의 1차 의미 분류	30
〈표 12〉 ‘-에다가’의 의미별 말뭉치 용례 분포	31
〈표 13〉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	46
〈표 14〉 분석한 한영사전 목록	49
〈표 15〉 한영사전에 제시된 ‘-에다가’의 대응 요소	51
〈표 16〉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	59
〈표 17〉 접속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	61
〈표 18〉 분석한 한국어 교재 목록	64
〈표 19〉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다가’ 관련 문법 요소	65
〈표 20〉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다가’의 내용	66
〈표 21〉 한국어 교재의 ‘-에’의 제시 단계	74
〈표 22〉 한국어 교재의 ‘-다가’의 제시 단계	74
〈표 23〉 한국어 교재의 ‘-에다가’의 제시 단계	75
〈표 24〉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 ‘-다가’와 ‘-에다가’의 평균 제시 단계	75
〈표 25〉 ‘-에다가’의 교수 방안	77

**A STUDY ON THE TEACHING PLAN OF THE KOREAN PARTICLE ‘-에다가edaga’
FOR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Hyun Yi J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n effective teaching approach for the Korean particle '-에다가edaga' for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by classifying the meaning of '-에다가edaga' and by exploring the correspondence to English according to the meaning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Korean particle '-에다가edaga', which is approached by the method of the constrative analysis and corpus linguistics.

In chapter 1, the purpose, necessity, o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are verified. The flow and limitation of previous research are arranged by examining them. Therefore, the necessity of meaning classification of '-에다가edaga' for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in terms of teaching Korean is discovered. And the need for empirical and quantitative study using Korean corpus are discovered.

In chapter 2, the meaning classification system of '-에다가edaga' for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is presented. The system is based on dictionaries and corpus analysis. Particle '-에다가edaga' can be used as an adverbial case marker and as a conjunctive particle. The syntactic properties of an adverbial case marker '-에다가edaga' were searched in

accordance with the essential relationship between '-에다가edaga' and the predicate. As for semantic functions of adverbial case marker '-에다가edaga', they are 'fixed position', '(abstract) arrival point' and 'addition'. On the other hand, the syntactic properties of conjunctive particle '-에다가edaga' were searched in accordance with combination of '-에다가edaga' with sentence constituents. As for semantic functions of conjunctive particle '-에다가edaga', they are 'enumeration' and 'addition'.

In chapter 3, using a grammar and Korean-English dictionaries, the correspondent expression of '-에다가edaga' to English according to the meanings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correspondent expression of '-에다가edaga' of 'fixed position(high frequency meaning of '-에다가edaga')' to English is similar to the preposition *at, on, in, etc.* However, it is clarified that '-에다가edaga' has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each meaning.

In chapter 4, the presentation of the Korean particle '-에다가edaga' in the present field of teaching Korean is examined by analyz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problems are suggested.

In chapter 5, the plan of education for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is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for teaching Korean.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determined. And this thesis concludes with a discussio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establishes the first constrastive analysis materials of Korean particle '-에다가edaga'. This material could be used for teaching grammar to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through a variety of field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s, the grammar description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material for Korean classes, etc.

Keywords: Korean particle '-에다가edaga', English speaking Korean learners, correspondent expression, syntactic property, semantic function, morphological analysis, Korean corpus, corpus linguistics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의미¹⁾ 분류를 통해 밝히고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문법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조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²⁾ 그 중에서도 전치언어(propositional language)인 영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그들의 모어와 한국어가 형태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므로 그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와는 달리 전치사가 없고 후치사가 발달한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한³⁾ 교착어이며 한국어에 있어 조사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법 요소이다.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의 학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⁴⁾⁵⁾

1) 본 연구에서의 ‘의미’는 기능적 의미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의미를 뜻한다.

2) 이와 관련된 연구에는 이은경(1999), 김정숙·남기춘(2002), 노금송(2008), 박종호(2009), 이찬규·고예진(2013), 한명숙(2015) 등 여러 연구물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어의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 사용에 있어 누락, 첨가, 대치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한국어 조사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3) 강현화 외(2003:15-16)에서 한국어는 조사·어미가 대단히 발달하여 다른 유형의 언어 같으면 부사나 기타 독립된 어휘로 나타나야 할 의미가 조사나 어미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였다.

4) 김정숙 외(2002:28)에서 한국어의 이러한 교착어적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조사와 어미의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사용에서도 많은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조사를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그들의 모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대조언어적 측면에서 비교·접근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조사 중에서도 초급에 해당하는⁶⁾ ‘-에다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먼저 ‘-에다가’의 의미 분류를 통해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에다가’의 의미 항목별 영어 표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어 교재에는 ‘-에다가’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실제 사용 양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에서 오는 조사 사용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정숙·남기춘(2002), 우인혜(2003), 장미경(2008), 한명숙(2015) 등이 있다.

김정숙·남기춘(2002)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한 초·중급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조사 사용 양상과 오류의 유형을 살펴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가’와 ‘-은/는’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사용 오류를 조사한 결과 오류의 유형은 누락, 대치로 나타났으며 첨가도 극히 일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학습자의 숙달도가 향상됨

5) 김제열(2001:94-97)에서는 문법 구조가 자기의 모국어와 다른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문법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미로를 헤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형태와 구조 중심의 국어 문법과는 다르게 의미와 용법 중심의 문법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6) 김중섭 외, 국립국어원(2011:39, 288)에서 ‘-에다가’는 1,2급에 해당하는 문형 항목으로 등급화하였다.

에 따라 문법 항목에 대한 오류의 양이 줄어들어야 하나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초급에서는 정형화된 표현들에서 ‘-이/가’와 ‘-은/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정확히 사용했으나, 중급에 와서는 내포문이 있는 문장 등 문장의 구조가 보다 복잡해짐에 따라 조사의 사용도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문법 항목인 만큼 추상적인 범주의 제시보다는 단순화·단계화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사로 독립시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의 관계, 문형의 개념 등을 사용하여 순환적,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조사의 정확한 사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격식적인 구어 담화와 문어를 통해 언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양 언어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영어에서는 타동사로 사용되어 목적어를 취하나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있다, 좋다, 필요하다’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인혜(2003)에서는 영어권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를 사용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밝혀보고 특히 모국어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영·일 두 학습자의 언어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공통 오류 원인인 부주의와 학습 부족에 의한 오류 외에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는 조사의 과도한 생략과 어색한 주격 요소의 표면화라는 오류 특성이 있었는데 이는 모어인 영어가 조사가 없는 굴절어인 데다가 주격 요소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 후 과제로 언어권별 교수법이 새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번역만 달리하는 교재뿐이 아니라 언어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문법 설명을 달리하는 언어권별 교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미경(2008)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어도 조사 오류는 일정 부분 화석화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 아래 영어권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사용 양상에 따른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치오류가 누락오류의 두 배 이상 나타났으며 기타 오류로 잘못된 조사를 첨가하거나 중복하는 첨가오류의 양상도 나타났다. 또한 잠정적이긴 하지만 중급에서 고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조사 누락은 줄어 들고 대치 오류가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의 원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원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고만 하였을 뿐, 만족할 만큼의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개별 조사별, 학습자 발달 단계별, 혹은 학습자 특성별로 다를 수 있는 조사 오류 양상을 좀 더 연구한 후에 가장 효율적인 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명숙(2015)에서는 미국 현지 대학에서 중급의 Level 3 강좌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류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조사 누락 오류, 조사 과잉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조사 과잉 오류는 후치언어로서 한국어가 전치언어인 영어와 어순 및 문장 구조가 다른 데서 생겨난 사례로 주목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조사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지도법이나 지도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류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학습자들의 오류는 크게 누락과 대치 두 가지로 나타났으며 초급에서는 누락 오류가 많았고 고급으로 갈수록 대치 오류가 많았다.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공통적으로 후치언어인 한국어와 다른 전치언어인 영어 즉, ‘모국어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별 조사별, 단계별로 두 언어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교재나 지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조사를 영어권 학습자들의 조사 교육 방안에서 적용시킨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조사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별 조사를 적용하여 연구한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두 언어의 실제적인 의미와 사용을 모두 살피기 위하여 한영 병렬 말뭉치⁷⁾를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 민선영(2013) 등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한영 병렬 말뭉치의 용례가 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개별 조사들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사 ‘-에다가’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에다’, ‘-다가’ 또한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없어 연구 과정에서 한영 병렬 말뭉치는 누락시켜야만 했다.

7)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를 통하여 언어별로 검색할 수 있다.

‘-에다가’는 사용빈도가 낮지 않은 조사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에다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에다가’에 대한 연구는 유경화(2013), 임채훈(2002)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사를 연구하면서 부가적으로 ‘-에다가’가 언급된 경우들 뿐이다. 그러한 연구들은 ‘-다가’를 연구하면서 그 일부로 ‘-에다가’가 언급된 경우와 접속 조사를 연구하면서 ‘-에다가’가 언급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김문웅(1982), 김영희(1975), 백낙천(1996), 成洛秀(1976), 예선희(2015), 張會見(2015), 전후민(2014)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김소연 외(2014), 이규호(2006), 이정화(1998)이다.

선행 연구 중 유일하게 ‘-에다가’에 대해 전면적으로 연구한 유경화(2013)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들에서 명확하지 않던 ‘에다가’의 문법 범주를 부사격조사와 접속조사로 나누어 그 범주 별로 통사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각각의 범주에 나타난 ‘에다가’와 ‘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처소인 선행어에 ‘에다가’가 붙어 쓰일 때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장소 이외의 선행어에 결합할 때는 ‘첨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접속조사 ‘에다가’의 특성은 문장 성분과의 통합 양상에서 드러났는데 서술어가 ‘-이다’일 때는 주로 <에다가, Ø>의 형식이 나타나고, 서술어가 ‘-이다’가 아닐 때는 <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격조사>, <에다가, 보조사> 등의 중출 형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 ‘에다가’와 조사 ‘에’는 큰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같은 형태로 보았다.

임채훈(2002)에서는 ‘-에다가’의 범주에 대해 ‘-다가’의 범주 문제와 관련하여 보조사로 보는 견해, 단순한 강세 첨사 정도로 보는 견해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보조사로 보는 견해 중에서도 중세국어의 ‘-에 -을 다가’ 구성을 역사적 근거로 들어 타동 구성에서만 가능한 [도달점]을 나타내는 ‘-에다가’의 의미 기능만을 강조하였다.

김문웅(1982)에서는 ‘-에다가’를 격조사 ‘-에’에 삭제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의적인 요소인 후치사 ‘-다가’가 붙어서 형성된 조사로만 언급하였

8) 김한샘(2005:696)에서 ‘-에다가’는 총 236개의 조사 용법 중에 총 빈도수 94회로 93위를 하였다.

다.

김영희(1975)에서는 서술어 ‘닥’이 나타나는 구문들을 분석하면서, 의존형 조사 ‘다가’와 ‘Pred-아’에 첨가되는 ‘다가’의 통사론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에다가’가 예문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조사로 분석되는 ‘다가’는 서술어 ‘닥’과 행위연속접속사 ‘아서’의 결합형 ‘닥-아서’에서 유도된 것이어서 의존형이라고 하였고 ‘Pred-아’에 첨가되어 “지님”의 뜻으로 해석되는 ‘다가’도 ‘닥-아서’에서 유도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예 (1)을 들어 ‘다가’가 행위격에 나타나는 경우 서술구절은 피동성과 타동성을 지녀야 함을 밝혔다.

- (1) 기수가 말에다가 채었다.
- (2) 꼬마가 유리조각에다가 손을 베었어.
- (3) 그는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4) 화물계에다가 이 짐을 보내 주시오!
- (5) 박사장은 계곡에다가 별장을 지었다.

또한 위의 예 (2)에서의 ‘다가’는 도구격 조사 ‘에’에 첨가된 경우, (3)에서의 ‘다가’는 수여격 조사 ‘에’에 첨가된 경우, (4)에서는 도달격 조사 ‘에’에 첨가된 경우, (5)에서는 처소격 조사 ‘에’에 첨가된 경우로 이 모든 경우의 ‘다가’는 격 범주가 달라 격 범주 등의 문법관계와는 무관하지만 서술어는 타동성의 동작동사여야 함을 밝혔다.

백낙천(1996)에서는 ‘-에다가’의 ‘다가’는 부사격 조사에 동사 ‘다그다’의 활용형이 문법화한 것으로 [근접]의 의미를 가져 [중단], [전환]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어미 ‘-다가’와는 아무런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威洛秀(1976)에서는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었다.’, ‘칠판에다가 글씨를 썼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격표지가 의미하는 바(예를 들면 처소격, 방향격...)에 다음의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부가]된다고 화자가 의식할 때 [다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선희(2015)에서는 ‘다가’가 처소격인 ‘에’와 병기되어 하나의 조사인 ‘에다가’가 되었으며 이는 15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더 빈번하게 쓰이는 편이라고 하였다.

張會見(2015)에서는 그동안 단순히 ‘강조의 의미를 덧붙임’이라는 의미로 처리되었던 명사에 후행하는 ‘조사+다가’ 구성의 통시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명사와 같이 쓰이는 ‘다가’의 형태인 ‘에다가’는 현대한국어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쓰인다고 하였다. ‘에다가’는 15세기부터 꾸준히 쓰였던 것으로 보고 그 통시적인 사용 양상을 살폈다. 15세기의 ‘에다가’(에다가₁)는 ‘착점을 향해 이동’의 의미를 지녔고 16세기 이후의 ‘에다가’(에다가₂)는 처소나 범위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녔는데, 현대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에다가’는 ‘에다가₁’과 ‘에다가₂’가 융합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한국어 ‘에다가’의 ‘다가’는 ‘강조’의 의미 외에 ‘접근이나 이동의 착점’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전후민(2014)에서는 동사 ‘다그-’에서 기원하여 현대 국어에서 특수조사(또는 보조사, 후치사)로 쓰이는 조사 ‘다가’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세 국어 당시 ‘잡다, 가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던 동사 ‘다그-’는 동사로서의 모습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근대 국어 시기에 ‘에다가’로 쓰이면서 조사로서의 자리를 확립하게 되면서 ‘잡다, 가지다’의 뜻이 ‘가까이’라는 의미 또는 특별한 의미 없이 선행 요소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변하는 등 의미의 일반화가 나타났다. 현대 국어에 다시 등장한 ‘다그-’는 타동사로서의 쓰임은 소멸해가고 ‘다가’가 조사로 완전히 문법화되었다. 또한 현대 국어에서 ‘에’가 격조사 이외에도 접속조사로 쓰이게 되면서 ‘에다가’ 역시 접속조사로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조사 ‘다가’는 동사 ‘다그-’의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고 격조사에 긴밀히 결합하게 되면서 ‘가까이’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조사 ‘에다가’에서는 ‘가까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김소연 외(2014)에서는 반복 가능한 접속 조사들을 ‘반복이 필수적인가?, 의미적인 특성이 어떠한가?, 반복 형태에서 격조사가 실현 가능한가?’라는 특성에 따라 [나열, 선택, 더함]으로 분류하였는데 <더함>부류의 접속조사인 ‘- 에다가’는 반복이 필수적이며, 부정문에서의 실현 가능 여부에 따라 하위분류되었다. 또한 한국어 접속 조사들은 영어 접속사 ‘and’, ‘or’과 의미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영어 접속사의 경우, 문장에서 반복적인 실현이 불가능함으로 한국어 접속 조사와 그 용법의 차이점을 보인다

고 하였다.

이규호(2006)에서는 접속조사들을 ‘나열, 선택, 대조’라는 세 가지의 의미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에다(가)’⁹⁾는 현대국어에 와서는 접속조사로 자리를 굳힌 ‘하고, 이며, 이거나, 이나’ 등과 함께 접속조사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고 언급을 하면서 나열관계의 접속조사 중 ‘예시’와 ‘첨가’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정화(1998)에서는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목록은 ‘와/과, 하고, 이랑, 이며, 하며, 예, 에다(가), 이나, 이고, 이든지’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접속조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나열’과 ‘선택’이 있음을 살피고, 접속의 논리관계를 순접과 이접으로 나누었으며 순접관계의 접속조사는 조사 생략 유형에 따라 다시 폐쇄나열과 개방나열로 나누어¹⁰⁾ 결국에는 국어의 접속조사가 가지는 관계의미는 ‘나열’로 포괄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접속조사의 기능은 잇는 것이 아니라 나열이며 국어에는 첨가를 나타내는 접속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첨가의 의미는 부사격조사에서 문법화한 ‘에다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예문 (6)을 들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다가’는 공시적으로 의미상의 차이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다른 형태이므로 각각을 별도의 조사로 인정해야 하며 ‘에다가’의 경우 보조사 ‘다가’의 혼적으로¹¹⁾ 첨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다고 하였다.

(6) 가. 떡에 식혜를 먹었다.

가’. 떡에다가 식혜를 먹었다.¹²⁾

(7) 가.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감에다가 잔뜩 먹었다.

가’.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감을 잔뜩 먹었다.

9) 이규호(2006:184)는 ‘에다’와 ‘에다가’는 준말과 본말의 관계라고 하였다.

10) 이정화(1998:71-73)는 접속의 논리관계를 논리학에서 설정한 대로 순접과 이접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순접관계는 폐쇄나열과 개방나열로, 이접관계는 배타나열과 포괄나열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에다가’는 개방나열에 든다고 하였다.

11) 이정화(1998:23-24)는 보조사 ‘다가’의 문법화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동사 ‘다그다’에서 문법화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하였다.

12) 이정화(1998:23-24)는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에’보다 첨가의 의미, 즉 ‘~에 더해’라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음을 예문 (6)의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 ”. *사과에다가 배에다가 감에다가를 잔뜩 먹었다.

예문 (7)과 같이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다가’는 ‘이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항까지 접속조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격조사와 결합할 경우는 비문이 된다고 보고, 접속조사 ‘에다가’는 부사격 조사에서 문법범주의 변이를 겪어 접속조사로 문법화한 것으로 첨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나열을 의미하는 접속조사로 쓰인다고 하였다.

이상, ‘-에다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사전이나 한국어 교재가 아닌 단행본으로 출판된 김진수(1987), 백봉자(2013), 이희자 외(1998)에서도 ‘-에다가’는 언급이 되었다. 백봉자(2013)과 이희자 외(1998)은 사전식으로 조사를 열거하면서 ‘-에다가’가 언급되었고, 김진수(1987)은 김소연 외(2014), 이규호(2006), 이정화(1998)에서처럼 접속 조사를 연구하면서 ‘-에다가’가 언급되었다.

김진수(1987)에서는 ‘에(다가)’¹³⁾는 다른 접속조사들¹⁴⁾과 같이 명사구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며 접속된 명사구 뒤에 격조사나 보조조사가 올 수 없다고 ‘에(다가)’가 접속 이외의 기능을 할 때는 보조조사나 격조사가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에(다가)’는 ‘어떤 개체의 본질 바탕으로의 접근’에서 ‘첨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백봉자(2013)에서는 ‘-에다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부가의 의미를 지닌 ‘-다가’가 결합한 것으로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이 덧붙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에다가’는 줄여서 ‘-에다’나 ‘-에’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희자 외(1998)에서는 ‘-에다가’를 ‘에’와 ‘다가’가 합하여 쓰인 말이라고 하였고, 행위 대상의 도달점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에다가’가 쓰인 문장은 타동구문으로 ‘첨가’의 의미도 가진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분류한 ‘-에다가’의 의미를 간략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사 검토를 토대로 분류한 ‘-에다가’의 의미

13) 김진수(1987:60-61)은 ‘다가’는 체언에 직접 붙을 수 없는 점 때문에 후치사라고 불리며 경상도 방언의 음운론적인 이유를 들어 ‘에(다가)’를 ‘에+다가’로 본다고 하였다.

14) 김진수(1987: 59-60)은 ‘에(다가)’는 ‘와, 하고’나 ‘이니, 이며, 이다’, ‘이나, 이견, 이고’, ‘이랑’과 같이 명사구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학자	문법 범주	의미	특성 정의
김영희(1975)	무관	지님	(에+다가)+타동사
성낙수(1976)		부가	격표지+다가
김문웅(1982)	격조사	교체, 병렬, 인과	격조사+다가(후치사)
김진수(1987)	접속조사	접근, 첨가	에다가+격조사/보조사 (X)
백낙천(1996)	부사격 조사	근접	에+다가(‘다그다’의 활용)
이정화(1998)	부사격 조사	첨가	
	접속조사	나열	
이희자 외(1998)	부사격조사	도달점, 첨가	에다가+타동사
임채훈(2002)	보조사	도달점	에다가+타동사
이규호(2006)	접속조사	예시, 첨가 =나열	
백봉자(2013)	조사	덧붙임	준말: 에다, 에
유경화(2013)	부사격 조사	일정 위치	처소+에다가+타동사
		첨가	처소(X)+에다가+타동사
		‘다가’의 의미: 접근, 강조	
	접속조사	나열, 첨가	<에다가, Ø> +‘-이다’
			<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격조사> +‘-이다’ (X)
			<에다가, 보조사>
김소연 외(2014)	접속조사	더함	반복 필수, 영어의 등위상관 접속사구 ¹⁵⁾ 로 대체 가능
전후민(2014)	격조사	근접, 강조	격조사(‘에’)+보조사(‘다가’)
	접속조사		+타동사
예선희(2015)	격조사	강조	명사+격조사+다가(‘다그다’의 활용형)
장희견(2015)	조사	강조, 접근이나 이동의 착접	조사+다가

15) 김소연 외(2014:222-224)에서는 한국어의 접속조사는 대체로 영어의 and나 or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더함>부류에 속하는 조사 ‘에다가’는 영어의 등위상관접속사구인 both A and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B in addition to A 등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에다가’의 문법 범주는 대체로 부사격 조사와 접속조사로 나누고 있고, [접근, 나열, 첨가, 강조] 등의 의미를 가지며 ‘-에다가’ 뒤에는 타동성의 동작동사가 온다는 문법적 제약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에다가’에 대한 의미 분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조사 ‘-에다가’에 대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의미 분류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밝히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그 국적과 연령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일어나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조사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일이다. 또한 ‘-에다가’는 초급 한국어 교육과정에 있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모어로 쓰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같은 부사격 조사로 분류되는 ‘-에’, ‘-에다’와 ‘-에다가’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조사이다.

이제 조사 ‘-에다가’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영어의 어떤 표현들과 대응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영어권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 조사 ‘-에다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주요 요소로서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요소이다(구분관 외, 2015:193). 학자에 따라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¹⁶⁾¹⁷⁾ 한국어 조사는 크게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한다. 그

중에서 ‘-에다가’는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에 속한다.¹⁸⁾ 부사격 조사는 ‘이/가’, ‘을/를/르’, ‘이/가’, ‘(이)다’, ‘의’, ‘아/야’ 등 하나의 형태만을 갖는 다른 격 조사들¹⁹⁾과는 달리 ‘에, 에서, 에게, 으로/로, 만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된다는 특이성이 있다. 그리고 접속 조사는 체언(구, 절)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로 ‘와/과, 하고, (이)랑’ 등이 있다. 조사 ‘-에다가’는 부사격 조사를 대표하는 ‘-에’에 첨가의 의미를 가진 ‘-다가’가 붙어서 생긴 말이므로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이 덧붙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²⁰⁾. 그런 의미에서 ‘-에다가’는 부사격 조사이며 접속 조사이기도 한 것이다.

‘-에다가’는 초급 교육과정에 있는 조사임에도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존의 한국어교재나 사전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한국어교재나 사전 등에는 ‘-에다가’에 대해 언급된 정보가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거나 간단해서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어권 한국어 교재라고 할지라도 다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교재가 대부분이고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교수되고 있어 그 한계가 크다. 유현경 외(2007:292)에서는 그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두 언어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고급에 이르러서도 조사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 관사와 조사의 선택 원리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나타나기 쉽다고 하였다.

16) 이익섭(2005:31)에서는 한국어 조사를 격조사와 특수조사 둘로 나누었다.

17) 황화상(2012:190-191)에서는 부사격조사는 격을 표시하는 조사로서의 격조사가 아니라 의미역을 표시하는 조사로서의 의미역조사라고 보고 한국어 조사를 격조사, 의미역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8) 아직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나 본 연구자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에다가’의 자세한 의미 분류는 본고의 2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9) 격 조사는 문장에서 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르’, 보격 조사 (‘되다’, ‘아니다’ 앞) ‘이/가’, 서술격 조사 ‘(이)다’, 관형격 조사 ‘의’, 호격 조사 ‘아/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 백봉자(2013:178)에서 ‘-에다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와 부가의 의미를 지닌 ‘-다가’가 결합한 것이므로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이 덧붙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나. 연구 질문 및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문법 범주별 의미 항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별로 대응하는 영어 표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어 교재에 ‘-에다가’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실제 사용 양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 ‘-에다가’의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고찰한다. 그동안 발행된 책이나 논문들에서 조사 ‘-에다가’를 논한 것들과 사전에서 조사 ‘-에다가’에 대해 설명한 것들을 종합하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재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현대 한국어 조사인 ‘-에다가’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 말뭉치²¹⁾를 활용한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자료인 말뭉치를 활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에다가’ 실제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어 조사 ‘-에다가’에 대응하는 영어 대응 요소를 선정하고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다가’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선정하고 기존의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한 후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 ‘-에다가’의 교수 방안을

21)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 <http://kkma.snu.ac.kr/>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신입 강사들이나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논의의 구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와 그에 맞는 교수법이 필요하다.²²⁾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대응하는 학습자 모어 표현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 연구와 문헌(사전)연구, 실사용 언어들을 정리해 놓은 말뭉치 분석을 시행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사전 분석과 말뭉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의미에 대응하는 영어표현들을 선정하고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에 따른 영어 대응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고 있는 ‘-에다가’의 내용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에다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정

22) Robert Lado(1957:1-2)는 *Linguistics Across Cultures*에서 “외국어 학습에서 무엇이 학습하기 쉽고 어려운가를 결정짓는 핵심은 모국어와 외국어의 비교에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슷한 요소들은 학습자에게 쉽고 모국어와 다른 요소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H. Douglas Brown, 2007:267 재인용)

23) 허용 외(2013:1-2)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조사의 쓰임을 습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며 두 언어 간에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실제 언어 교육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언어들 간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리할 것이다.



Ⅱ. 한국어 ‘-에다가’의 의미에 대한 고찰

1. ‘-에다가’의 의미 분석

이 장에서는 ‘-에다가’의 의미를 명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분류는 본고의 3장에서 연구하고자하는 ‘-에다가’의 의미 분류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 선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에다가’를 교수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다가’의 명확한 의미 분류를 위하여 1장에서 연구사 검토를 토대로 분류한 의미를 바탕으로 국어사전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8종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중복도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한국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뭉치²⁴⁾를 활용하여 ‘-에다가’의 사용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사전 분석

조사 ‘-에다가’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어사전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8종을 분석하고 그 의미 중복도를 조사하였다. 의미 분석을 위해 이용한 사전은 국어사전 4종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 4종으로 그

24) 강현화(2011:8 재인용)에서는 말뭉치란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추고 내용적으로 다양성과 균형성이 확보된 자료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한 사전 목록

종류	사전명	저자(출판 연도)	출판사	비고
국어사전	국어대사전	이희승(2007)	民衆書林	이하 「 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ㄸ~ㅇ)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원	이하 「 고려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 구원(2000)	두산동아	이하 「 연세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17)	국립국어원	http://stdweb2 .korean.go.kr/ main.jsp 이하 「 표준대사전」
외국 인을 위한 한국 어 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편	국립국어원 (2005)	커뮤니케이 션북스	이하 「용법사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백봉자(2007)	도서출판 하우	이하 「문법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서상규 외 8명 (2008)	신원프라임	이하 「학습사전」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이희자, 이종희 (2006)	한국문화사	이하 「조사사전」

먼저 국어사전 4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어사전인 「국어대사전」은 ‘-에다가’의 의미를 3가지로 기술하였고, 「고려대사전」은 5가지로 분류하고 7가지로 세분화하여 나열하였으며, 「연세대사전」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5가지로 분류하고 7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표준대사전」은 두 가지 의미로만 기술하였다.

「국어대사전」

1. 무엇이 더하여짐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물~ 소금을 타다.)
 2. 두는 곳, 놓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길모퉁이~ 전주를 세우다.)
 3. 접속 조사 ‘에’를 강조하는 말 (술~ 밥~ 실컷 먹었다.)
- 1.~3. ㉞에다 · 에

「고려대사전」

1. ㉠ 체언의 뒤에 붙어, 그 체언이 어떤 행위에 영향을 입는 구체적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는 일하던 공장에다가 불을 질렀다.)
- ㉡ 체언의 뒤에 붙어, 그 체언이 어떤 행위에 영향을 입는 추상적 장소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나는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 ㉢ 체언의 뒤에 붙어, 그 체언이 어떤 행위의 추상적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녀는 최근 찍고 있는 영화에다가 열정을 쏟고 있다.)
2. 체언의 뒤에 붙어, 어떤 것에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더하여짐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는 근육질에다가 얼굴도 잘생긴 호남이다.)
3. 둘 이상의 체언의 뒤에 반복적으로 붙어, 여러 가지 사실을 열거하여 늘어놓음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는 앉은자리에서 햄버거에다가 피자 두 조각에다가 과자까지 먹었다.)
4. 체언의 뒤에 붙어,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그녀는 석쇠에다가 생선을 구웠다.)
5. 체언의 뒤에 붙어, 평가의 기준점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일반적으로 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곰에다가 비유한다.)

1.~5. ㉢에다

「연세대사전」

I. 간헐 언어 단위 내에서 기능함. 첨가의 뜻을 나타냄.

①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하여짐의 뜻을 나타냄.

(아이 셋에다가 일하는 사람도 없으니, 힘이 너무 들었다.)

② 여러 가지 사실을 더하여 늘어놓음의 뜻을 나타냄.

(맥주 열 병에다가 갈비 육 인분에다가, 소주 두 병 주세요.)

II. 부사격 조사.

① 행위 대상의 도달점임을 나타냄.

㉠ [행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에 붙어] 그 위치를 꼭 유지하고서 붙들어 두는 뜻을 나타냄.

(물색 안경을 쓴 샌드위치맨이 등에다가 큰 북을 메고 하모니카를 신나게 붙어 댔다.)

㉡ [행위자가 하는 행동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에’에 붙어] 추상적인 행위 대상의 내용이 도달하는 도달점임을 나타냄.

(이 해에도 멀치 잡이가 시원치 않았으므로, 그 빛을 갚기 위해서는 결국 해태 양식에다가 기대를 걸어 보았다.)

㉢ [무엇을 받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를 받는 대상으로 하여’의 뜻을 나타냄.

(서재 창가 창턱에 올려 놓은 난초에다가 물을 주었다.)

②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를 가지고’의 뜻을 나타냄. (연탄 난로에다가 라면을 끓였다.)

③ [비교하거나 비유하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에’에 붙어] 이를 강조함을 나타냄. (해와 달을 부부에다가 견주는 것은 오랜 관습이다.)

I.~II. ㉢에다 ㉢‘에’와 ‘다가’가 합하여 쓰인 꼴

II. ①㉢ ㉢수혜자가 단체에 속한 특정한 사람이거나 무정명사일 때에 쓰임

♂ ‘에’와 ‘에다가’의 비교: ‘에’의 서술어의 행위를 받는 장소이거나 대상을 나타낼 경우 타동 구문의 ‘에’에 ‘다가’ 결합꼴이 쓰이고, 타동 구문이 아닌 ‘장소’의 ‘에’ 항이나 ‘이유’의 ‘에’ 항에는 ‘다가’ 결합꼴

이 쓰이지 않음. 또한 ‘에’가 ‘첨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에다가’의 꼴이 쓰일 수 있음.

「표준대사전」

1.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 (그건 창고에다가 넣어 두어라.)
 2.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누가 술에다가 물을 탔다.)
- 1.~2. 격 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말

위의 네 국어사전이 제시한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공통되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의미를 포함에 있어 다르게 표시된 용어들은 해당 예문의 유사성을 판단 근거로 보고 같은 의미 항목으로 처리하여 정리하였다.

<표 3> 국어사전 4종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4종 사전 공통 의미 (2가지)	일정 위치, 첨가	
3종 사전 공통 의미 (1가지)	국어대사전	나열
	고려대사전	
	연세대사전	
2종 사전 공통 의미 (4가지)	고려대사전	(추상적) 도달점, 접근 도구/수단(“~를 가지고”뜻) 기준점 강조
	연세대사전	

위와 같이 국어사전 4종을 분석한 결과,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총 7가지였다. 4종의 국어사전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항목은 ‘일정 위치’, ‘첨가’ 두 가지 의미로 총 의미 항목 중에 28.57%가 나왔다. 사전에 기술된 공통 의미 항목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가 있으나 조사한 4종의 국어사전 중 50%에 해당하는 2종은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그 의미 항목이 ‘일정 위치, 첨가, 나열, (추상적) 도달점, 접근,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 등으로 100% 일치하여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4종의 국어사전에 기술된 의미 항목들 중 공통 의미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는 두 가지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사전 집필자의견의 상이함이다. 1장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보아도 ‘-에다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고, 학자에 따라 그 문법 범주나 의미 분류 또한 상이해서 사전 집필 시 적용시키는 규모나 중요도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둘째는 사전 편찬 시 참고로 하는 말뭉치의 상이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연세대사전」은 ‘연세 한국어 말뭉치’를 사용²⁵⁾하는 등 사전마다 편찬 시 참고로 하는 말뭉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사전에 기술되는 내용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전 4종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용법사전」에서 조사 ‘-에다가’는 조사 ‘-에’의 가표제어로 표시되어 추가적으로 기술되어있으며 그 의미는 4가지이다. 「문법사전」에서 ‘-에다가’의 의미는 한 가지²⁶⁾로 기술되고 있으며, 「학습사전」에서는 5가지 의미로 표현되었고, 「조사사전」에서는 6가지 의미로 분류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법사전」

1.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돈을 지갑에다가 넣어 두어라.)
2. 어떤 행위나 상태의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전자레인지에다가 국을 데워 먹어라.)
3. 앞의 말에 다른 내용이 더해짐을 나타낸다.
(집안일에다가 회사 일이 겹쳐서 정신 없이 바빠요.)
4.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쓴다.
(그 식당은 자장면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돈가스에다가 없는 게 없이다 있어.)

25) 서상규 외(2002:130)에서는 말뭉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규모, 형태, 구성 방식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세 한국어 사전」의 개발에 ‘연세 한국어 말뭉치’가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26) 백봉자(2007:371-372)에서는 ‘-에다가’의 의미를 한 가지로 기술하고 있으나 거기에 해당하는 예문에는 그보다 많은 의미를 포함한 예문들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책의 저자가 기술한대로 ‘-에다가’의 의미 표현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로 한다.

- 1.~4. 조사 ‘-에’에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뒤에 조사 ‘-다가’나 그 준말인 ‘-다’를 붙인 ‘-에다가’, ‘-에다’ 형태를 쓰기도 한다.

「문법사전」

1. 선행하는 명사에 다른 명사가 부가됨을 나타낸다.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 조사 -에 + 조사 -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와 부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다가’가 결합한 것으로 명사와 결합한다.

- 붙임) ① ‘-에, -에다’ 등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먼저 저기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 가방에다(가) 옷을 넣어요.

- ②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뒤에서는 ‘-다가’로 줄여서 쓸 수 있다. : 먼저 여기다가 이름을 쓰세요.

거기다가 화분을 놓았구나.

어디다가 지갑을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학습사전」

1. ‘무엇에다가’에서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하여짐을 나타낸다.

(월급에다가 보너스도 받아서 지갑이 두둑합니다.)

2. 행동의 영향을 받는 대상, 장소를 나타낸다.

(책상을 어디에다가 놓을까요?)

3. ‘어디에다가 무엇을 내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을’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를 받는 대상으로 하여’의 뜻.

(방송국에다가 엽서를 보냈어요.)

4. 도구나 수단을 나타낸다. ‘~을 가지고’의 뜻.

(밥이 너무 차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 드세요.)

5. 비교의 대상을 나타낸다. ‘~와’의 뜻.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여행에다가 비유하곤 한다.)

- 1.~5. ㉠‘에’와 ‘다가’가 결합한 말.

2. ㉠‘놓다, 두다, 걸다, 쓰다, 적다’ 등과 같은 동사와 함께 쓴다.

3. ㉠‘내다, 보내다’ 등과 같은 동사와 함께 쓴다.

5. ㉞‘비교하다, 비유하다’ 등과 같은 동사와 함께 쓴다.

▶~에다가 ~까지: 어떤 것에 더하여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뜻을 나타낸다. (저녁에다가 후식까지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 조사사전 」

I. [조사] ‘~에다가 ~’의 꼴로 쓰인다.

①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하여짐의 뜻을 나타낸다.

(감기에다가 몸살까지 겹쳤어요.)

② 여러 가지 사실을 더하여 늘어놓음의 뜻을 나타낸다.

(저녁에다가 커피까지 주시니 자주 와야겠어요.)

II. [조사] 부사격 조사

1. 행위 대상의 도달점을 나타낸다.

① [행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 에’ 항에 쓰여] 그 위치를 꼭 유지하고서 붙들어 두는 뜻을 나타낸다.

(아이가 등에다가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갔다.)

② [무엇을 받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여] ‘~를 (받는) 대상으로 하여’의 뜻.

(콜라는 외국에다가 비싼 로열티를 주어야 하는 음료수이다.)

2. 도구나 수단을 나타낸다.

①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를 가지고’의 뜻.

(빨래는 햇볕에다가 말려야 살균도 되고 좋단다.)

3. 비교, 비유를 나타낸다.

① [비교하거나 비유하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명사 + 에’ 항에 붙어 쓰여] 이를 강조하는 것을 나타낸다.

(행동이 비열한 인간을 개에다가 비유한다.)

I.~II. 받침이 있든 없든 ‘에다가’가 쓰인다.

I. ㉞에다

I.① ㉞‘명사에다가 명사까지’의 꼴로 쓰인다.

II.1.① ㉞‘에다가’가 쓰인 문장은 타동 구문이다.

II.1.② ㉞받는 사람이 단체에 속한 불특정한 사람이거나 무정명사일 때에 쓰인다.

II.2.① ㉔‘불, 햇볕, 난로’와 같은 것은 ‘도구’나 ‘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장소 같은 성질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에’와 ‘에다가’의 비교: 아래의 예 1과 같이 서술어의 행위를 받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에다가’의 꼴로 쓰인다. 예 2와 같이 서술어의 행위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에다가’로 안 쓰인다.

예 1: 책상에다가 책을 놓았다.

/1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인가?

/밥을 고추장에다가 비볐다.

예 2: 책상에다가 책이 놓였다. (X)

/배신감에다가 치를 떨었다. (X)

/그것에다가 충격을 받았다. (X)

위 4종의 한국어사전이 제시한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공통되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의미를 표함에 있어 다르게 표시된 용어들은 국어사전에 기술된 의미 분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예문의 유사성을 판단 근거로 보고 같은 의미 항목으로 처리하여 정리하였다.

<표 4> 한국어사전 4종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4종 사전 공통 의미 (1가지)	첨가	
3종 사전 공통 의미 (2가지)	용법사전	도구/수단, 일정 위치
	학습사전	
	조사사전	
2종 사전 공통 의미 (3가지)	용법사전/조사사전	나열
	학습사전/조사사전	접근, 기준점 강조(비교의 대상)

위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사전 4종을 분석한 결과,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총 6가지였다. 그 의미 항목은 ‘일정 위치, 첨가, 나열, 접근,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 등으로 국어사전에 기술된 의미 항목 7가지 중 ‘(추상적) 도달점’을 나타내는 의미 항목 한 가지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한국어사전 4종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항목은 ‘첨가’ 한 가지로 총 의미 항목 중에 14.29%만 차지하였으나 「문법사전」에 기술된 하나의 의미에 두 가지 의미 항목에 해당하는 예문이 제시된 것을 고려한다면 공통 의미는 국어사전과 같은 28.57%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국어사전 4종의 공통 의미 항목의 수치는 낮으나 조사 대상 사전의 50%에 해당하는 2종 사전의 공통 의미 항목은 총 6가지로 100% 일치하여 국어사전의 경우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어 및 한국어 사전 8종을 분석한 결과,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일정 위치, 첨가, 나열, (추상적) 도달점, 접근,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에다가’의 의미를 더 효율적으로 교수하기 위해서는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8종의 사전에 제시된 ‘-에다가’의 7가지 의미 항목들에 대한 중복도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내었다.

<표 5> 8종 사전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중복도

사전	제시된 의미 항목							
국어대사전	첨가	일정위치			나열			3
고려대사전	첨가	일정위치	(추상적) 도달점	접근	나열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	7
연세대사전	첨가	일정위치	(추상적) 도달점	접근	나열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	7
표준대사전	첨가	일정위치						2
용법사전	첨가	일정위치			나열	도구/수단		4
문법사전	첨가							1

학습사전	첨가	일정 위치		접근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	5
조사사전	첨가	일정 위치		접근	나열	도구/수단	기준점 강조	6
중복도(/8)	8	7	2	4	5	5	4	35

8종 사전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 중복도를 살펴보면 7개의 의미 항목에 대하여 ‘첨가(8), 일정 위치(7), (추상적) 도달점(2), 접근(4), 나열(5), 도구/수단(5), 기준점 강조(4)’²⁷⁾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8종 사전 전체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의미 항목은 ‘첨가(8)’이고, 7종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된 의미 항목은 ‘일정 위치’, 5종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된 의미 항목은 ‘나열(5), 도구/수단(5)’이며, 4종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한 의미 항목은 ‘접근(4), 기준점 강조(4)’, 2종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한 의미 항목은 ‘(추상적) 도달점(2)’이다. 8종 사전의 과반수인 5종 이상의 사전에 공통적으로 기술된 의미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8종 사전에 제시된 고빈도 의미 항목

첨가 > 일정 위치²⁸⁾ > 나열, 도구/수단

‘-에다가’의 의미로 8종 사전 모두에 기술되었던 ‘첨가’는 선행 연구 검토로 나온 의미 항목들 중에서도 제일 고빈도였던 의미 항목²⁹⁾이다. 그러나 사전 조사에서 나온 의미 항목 중 ‘첨가’와 ‘일정 위치’ 이외의 고빈도 항목들은 그 나머지 항목인 ‘접근’이나 ‘기준점 강조’와 제시 횟수에 큰 차이가 없어 사전 조사에서의 ‘고빈도 항목’이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사전별로 각각 제시한 의미 항목의 평균 개수³⁰⁾를 생각한다면 ‘(추

27) 괄호 속의 숫자는 중복 횟수를 나타낸다.

28) 두거나 놓는 일정한 위치라고 기술한 사전도 있고, 행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나타내며 그 위치를 꼭 유지하고서 붙들어 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 사전도 있다.

29) 연구사 검토로 본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총 10가지-‘첨가(8), 접근(4), 나열(3), 도달점(3), 강조(2), 지남, 교체, 인과, 예시, 일정 위치-였고 그 중 ‘첨가’는 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고빈도 의미 항목이다. : 본고의 I 장(p.10) <표 1> 참조.

30) 8종 사전에 기술된 의미 항목의 수는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각각 3, 7, 7, 2, 4, 1, 5,

상적) 도달점'을 제외한 모든 의미 항목이 4번 이상씩은 노출이 되어 있고, 의미 항목 '접근'과 '일정 위치'를 '(추상적) 도달점'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같은 범주로 묶은 사전들³¹⁾이 많아 사전 조사에서 나온 7개의 의미 항목들 모두가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사전 분석에서 언급된 의미 항목간의 개수 차이가 심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사전마다 의미 분류 기준이 달라서일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의미 분류 기준의 객관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말뭉치를 활용하여 선행 연구와 사전 분석에 이어 한 번 더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그 의미를 범주화 해보고자 한다.

나. 말뭉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국어교육과는 달리 언어의 현실적 사용 양상을 배제하지 않는 실용적 연구 방법론을 추구한다.³²⁾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한국인의 실제적 언어 양상에 근거한 말뭉치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에다가'의 의미 체계 분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이하 '꼬꼬마')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꼬꼬마는 세종 말뭉치 2010년 배포판을 이용한 것으로 세종 말뭉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현한 시스템이다.

<표 6> 꼬꼬마 말뭉치 파일 통계

	파일수	문장수
--	-----	-----

6개로 총 35개이며,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4.375개가 나온다.

31) 「고려대사전」, 「연세대사전」, 「조사사전」

32) 강현화 외(2011:18-20)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의 인접 학문과의 차별성으로 연구 자료가 주로 실제적인 자료에 근거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어교육학은 주로 연역적인 가설과 증명을 통한 규칙 찾기에 초점을 두는 국어학의 연구 방법론이나 한 언어 현상에 대한 '학교문법적 시각'을 염두에 두는 국어교육의 방법론과는 달리, 규범성을 중시하면서도 언어의 현실적 사용 양상을 배제하지 않는 실용적 연구 방법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자료 해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문어	447	1,323,068
구어	200	216,718
문어 + 구어	647	1,539,786

꼬꼬마 말뭉치는 위의 표와 같이 447개의 문어 파일(문어 파일 총 문장수 1,323,068개)과 200개의 구어 파일(총 문장수 216,718개)로 총 문장수 1,539,786개로 이루어진 대규모 말뭉치이다. 본고의 연구 항목인 ‘-에다가’의 의미 분류를 위해서 먼저 ‘-에다가’의 품사별 제시 항목을 알아 보았다.

<표 7> ‘-에다가’ 품사별 용례 통계

형태소	품사	횟수
에다가	부사격 조사	686
에다가	연결어미	2
에다가	분석불능범주	1
에다가	접속조사	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뭉치에 나타난 품사별 용례에서 ‘부사격 조사’ 항목 외에는 그 용례가 거의 없어 무의미하므로 본고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분류된 686개의 용례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표 8> 부사격 조사 용례 통계

	횟수	품사별 비율	조사 내 비율
문어	1,456,891	4.23%	24.48%
구어	46,621	2.88%	23.90%
문어 + 구어	1,503,512	4.37%	24.44%

위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다가’가 속해 있는 문법 범주인 부사격 조사는 꼬꼬마 말뭉치의 전체 품사 용례 중 4.37%를 차지하였으나 조사 용례³³⁾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4.44%를 차지하였다. 이 중 문어 용례도 조사 용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4.48%로 조사되었고, 구어 용례는 보

조사³⁴⁾, 주격 조사³⁵⁾ 다음으로 세 번째인 23.90%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말뭉치 내 부사격 조사 용례 횟수를 기준으로 ‘-에다가’의 사용 빈도수를 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에다가’ 사용 빈도

	부사격 조사	‘-에다가’	비율
문어	1,456,891	441	0.03%
구어	46,621	245	0.53%
문어 + 구어	1,503,512	686	0.05%

<표 9>의 결과를 보면 ‘-에다가’는 문어보다는 구어적 표현으로 더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말뭉치에서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에다가’의 의미 항목을 분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표본으로 삼은 말뭉치의 목록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표본 말뭉치 목록

	말뭉치	문장수	어절수
문어	포구 (책, 소설)	5,720	55,619
	피리부는 소년 (책, 동화)	4,562	36,084
구어	아르바이트 경험 (독백)	1,892	11,434
	영화이야기#5 (독백)	559	2,479
	어학연수 (독백)	1,433	8,005

33) 조사 용례는 각각 주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인용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뉘었으며 전체 말뭉치 용례 중 문어 17.28%, 구어 12.05%로 조사되었고 조사 전체 용례는 전체 말뭉치의 17.88%를 차지하였다.

34) 품사별 비율 3.16%

35) 품사별 비율 2.93%

	영화이야기#6 (독백)	352	1,353
	군대 (독백)	1,418	3,971
	한국어의 형태론적 이해 (강연)	1,857	9,343
	국어정보학 (강의)	1,195	4,284
	연구방법론 (강의)	2,364	12,759

표본 말뭉치의 문어 자료로는 일반 소설인 「포구」와 아동 소설인 「피리부는 소년」, 구어 자료로는 즉흥적 독백, 강연, 강의 등을 선정하였다. 표본 말뭉치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각각의 텍스트들이 문어, 구어 형식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용 언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설, 동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독백, 강연 등의 자료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표본 말뭉치 자료에서 ‘-에다가’의 출현 개수는 총 104개³⁶⁾이다. 본 표본 말뭉치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에다가’의 의미 항목과 해당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표 11> ‘-에다가’의 1차 의미 분류

의미	말뭉치 용례
첨가	그 요원이 매일 <u>중절모자에다가</u> ,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
일정 위치	머리끄덩이를 <u>끄집어서</u> 선창 <u>마당에다가</u> 내동댕이를 쳐줄려다가 고이 그냥 보내고 또 그냥 보내고 그랬어요. 그 철부지 어린 것의 <u>몸에다가</u> 매를 대다니, 당신이 사람이요? 갈색 모자는 손에 쥐고 있는 <u>줄이에다가</u> 간단히 작대기 하나를 찍 그어서 떼어주며, “이백원이네.”하고 말했다.

36) 문어 자료 ‘포구’에서 46개, ‘피리부는 소년’에서 6개의 용례가 추출되었으며, 구어 독백 자료(아르바이트 9, 영화#5 5, 어학연수 4, 영화#6 3, 군대 3)에서 24개, 강의·강연(한국어형태론 18, 국어정보학 4, 연구방법론 6)에서 28개의 용례가 추출되었다.

나열	지난 해부터 청년회의소 <u>회장에다가</u> , 개발촉진위원회 <u>총무에다가</u> , 라이온스클럽 <u>회원에다가</u> , 이제 서른두 살일 뿐인디, 벌써 면장이나 지서장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추상적) 도달점	그까 문배주 <u>회사에다가</u> 전화를 해서 문배주 담당한테 애네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퇴근 시간에 위험하니까,
접근	키보드에다가 ³⁷⁾ 이걸 하나 집어 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이에스 국제 표준 <u>기구에다가</u> . 이거 쓰는 나라가 없어요. 반점 쓰는 나라가.

위의 <표 11>에 나타나는 것처럼 표본 말뭉치에서 나타난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첨가, 일정 위치, 나열, (추상적) 도달점, 접근’이다. 표본 말뭉치를 검색하면 새로운 의미 항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선행 연구나 사전 검토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의미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의미 항목별 사용 빈도에서는 선행 연구나 사전 검토에서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말뭉치에서 ‘-에다가’의 1차 의미 분류로 추출된 의미 항목별 사용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12> ‘-에다가’의 의미별 말뭉치 용례 분포

의미	횟수	문어	빈도	문어
		구어		구어
첨가	3	2	2.88%	3.85%
		1		1.92%
일정 위치	91	48	87.50%	92.31%
		43		82.69%
나열	3	2	2.88%	3.85%
		1		1.92%
(추상적) 도달점	6	0	5.77%	0.00%
		6		11.54%

37) 이 때의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일정 위치’이다.

접근	1	0	0.96%	0.00%
		1		1.92%
합계	104	52	100%	100%
		52		100%

위의 <표 12>에서 보다시피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 모두에서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 항목은 각각 92.31%와 82.69%로 다른 모든 의미 항목들의 합보다 훨씬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문어 자료의 경우 작가의 의도와 필체에 따라 사용 의미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즉, 표본 말뭉치에서 9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의 분포도를 보이는 의미 항목인 ‘일정 위치’는 신뢰할 만하다.³⁸⁾ 이를 통해 우리는 현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에다가’를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말뭉치의 종류에 따라 의미별 사용 빈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 연구의 표본 말뭉치 결과로 ‘일정 위치’외의 다른 의미 항목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본 말뭉치에서 ‘일정 위치’를 제외한 다른 의미 항목들은 빈도순으로 ‘(추상적) 도달점(5.77%), 첨가(2.88%), 나열(2.88%), 접근(0.96%)’로 나타난다. 이 중, ‘(추상적) 도달점’은 구어 자료에서 11.54%로 분포도 10%가 넘는 의미 항목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연구사와 사전 분석, 말뭉치를 통하여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을 분류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38) 서상규(2015, 1:348, 369, 521), 서상규(2015, 2:141, 372-373)에서도 구어 빈도 조사를 하였을 때 ‘여기에다가’의미로 쓰이는 ‘-에다가’가 ‘국에다가 밥에다가’ 등 다른 의미보다 더 자주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여기에다가’의미는 ‘일정 위치’의미로, ‘국에다가 밥에다가’의미는 ‘나열’의 의미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2. ‘-에다가’의 의미 분류

본고의 1장에서 언급했다시피 ‘-에다가’는 아직도 그 문법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사전 등에서 부사격 조사로만 분류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³⁹⁾에 의해 접속 조사로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 의미 분류를 위해 연구했던 사전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에다가’를 아직도 부사격 조사 혹은 격조사로만 설정해 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에다가’를 부사격 조사로만 보는 기존의 연구와 접속 조사로 보는 최근의 연구를 이어 받아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서의 ‘-에다가’의 의미를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사격 조사 ‘-에다가’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부사격 조사의 문법 범주와 명칭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들도 많다. 황화상(2012:185-197)에서는 의미역은 서술어에 의해 명사구에 할당되며, 명사구에 할당된 의미역이 의미역조사에 의해 표시된다고 보고, 의미역이 기본적으로 서술어에 대한 명사구의 문법적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사격 조사는 격조사가 아니라 의미역을 표시하는 조사로서의 의미역 조사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서술어와 의미격 관계를 가진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그 명칭에 있어서는 학교 문법에서 분류해놓은 대로 ‘부사격 조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의미 분류에 앞서 그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8) 가. 그는 학교에다가 조교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했다.⁴⁰⁾

나. *그는 화장실에다가 울었다.

다. *그녀는 옷방에다가 원피스가 적었다.

39) 김소연 외(2014), 김진수(1987), 이규호(2006), 이정화(1998)

40) 여기에 쓰인 예문은 전부 연구자 본인이 작성한 예문이다.

위의 예문 (8)에서 ‘-에다가’의 앞에 선행하는 명사 ‘학교’, ‘화장실’, ‘옷방’은 각각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어이다. (8 가)에서 ‘-에다가’에 후행하는 서술어 ‘토로하다’는 타동사이며, (8 나, 다)에서 ‘-에다가’에 후행하는 서술어 ‘울다’, ‘적다’는 각각 자동사, 형용사이다. (8 가)는 통사적·의미적으로 모두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8 나, 다)는 통사적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어가 올 때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9) 가. 그녀는 아이스커피에다가 시럽이 아닌 설탕을 탔다.
 나. IMF라고 떡값에다가 휴가비까지 줄었다.
 다. *그 둘은 이름에다가 학번이 같다.

예문 (9)에서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 ‘아이스커피’, ‘떡값’, ‘이름’은 모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어가 아니다. (9 가, 나)에서 ‘-에다가’에 후행하는 서술어 ‘타다’, ‘줄다’는 각각 타동사, 자동사로서 이 문장은 통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9 다)에서 ‘-에다가’에 후행하는 서술어 ‘같다’는 형용사로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즉,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선행하는 명사구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서술어 위치에 자동사, 타동사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어가 처소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 (10) 가. 안주 그릇에 덴 상처에다가 그는 마시던 소주를 부었다.
 나. 7월엔 월급에다가 휴가비가 붙는다.

가 '. 안주 그릇에 덴 상처에다가 그는 마시던 소주{까지, 도, 마저} 부었다.

나 '. 7월엔 월급에다가 휴가비{까지, 도, 마저} 붙는다.

가 ". *안주 그릇에 덴 상처에다가 그는 마시던 소주에다가 부

었다.

나 ”. *7월엔 월급에다가 휴가비에다가 붙는다.

(11) 가. 그 학생은 등에다가도 엑소의 싸인을 받았다.

나. 그 학생은 등에다가만 엑소의 싸인을 받았다.

(10 가)에서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 ‘상처’는 ‘소주’를 뜻하는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 명사구이며, 그 뒤에 나오는 명사 ‘소주’에 후행하는 ‘-를’은 타동사 서술어 ‘부었다’에 따른 목적격 조사이다. 이 때, 목적격 조사 ‘-를’의 자리에 (10 가’)와 같이 보조사 ‘-까지, -도, -마저’가 대체되어도 문장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는 (10 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 나)에서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 ‘월급’은 ‘휴가비’가 붙는 대상을 나타내는 선행 명사구이며, 그 뒤에 나오는 명사 ‘휴가비’에 후행하는 주격 조사 ‘-가’는 (10 나’)와 같이 보조사 ‘-까지, -도, -마저’로 대체되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10 가”, 나”)에서와 같이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한 문장 안에서 중출되어 사용할 경우 비문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의미의 조사가 중출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는 접속 조사의 경우이다. 예문 (11)을 보면 조사 ‘-에다가’의 뒤에 보조사 ‘-도, -만’이 중첩 사용되어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다. 보통의 격조사가 명사구의 가운데에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나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다른 격조사들과 달리, 보조사 ‘-도, -만’과의 중첩 사용에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즉,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한 문장 내에서 같은 의미의 ‘-에다가’를 중복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으나, 다른 보조사로 대체되어도 의미에는 큰 변화 없이 문장 성립이 가능하고, 다른 보조사와 함께 중첩사용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어가 올 때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하며, 처소를 나타내는 선행어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사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형용사와는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의미의 ‘-에다가’를 중출 사용할 경우 비문을 이룬다. 다음으로 ‘-에다가’의 의미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말뭉치 용례 분석 결과⁴¹⁾로 알 수 있듯이 ‘-에다가’는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

(12) 가. 그의 생각은 그녀와 함께 새로 포구가 형성되고 있는 노루목 선창머리에다가 다방을 차리는 데에 있었다.⁴²⁾

나. “그런 꽃 집안에다가 많이 안 심는 법이란다.” 어렸을 적에 산에서 진달래 한 그루를 파다가 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던 것을 생각했다.

다. 그 사람이 자기 창문에다가 주로 필기를 해.

(12 가)에서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 ‘노루목 선창머리’는 다방을 차리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고, (12 나)에서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 ‘집안’은 꽃을 심는 장소를 나타낸다. (12 다)에서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 ‘창문’ 또한 주로 필기를 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위치나 장소 등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구를 선행사로 갖는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행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나 위치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일정 위치’임을 의미한다. 또한 예문 (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때의 서술어는 타동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3) 가. 그까 문배주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배주 담당한테 얘네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퇴근 시간에 위험하니까...

나. 그 뒤로 내가 학교에다가 사실 얘기했어.

다. 이제 나라에서 근까 그 소송 거는 사람들 있잖아, 나라에다가, 내가 담배를 피서 폐암에 걸렸는데 얼마를 배송해라 그런대.

위의 예문 (13 가)에서 ‘-에다가’의 선행 명사구인 ‘문배주 회사’와 (13 나)의 ‘학교’, 그리고 (13 다)의 ‘나라’도 모두 처소를 나타내는 선행 명사구이다. 또한, 이들의 서술어도 모두 타동사이다. 하지만 이 문장들에 쓰인 ‘-

41) <표 12> 참조

42) 예문 (12), (13)의 문장은 꼬꼬마 말뭉치에서 발췌한 것이다.

에다가'의 의미 항목을 단순히 '일정 위치'라고만 하기에는 예문 (12)의 문장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3)의 문장들에 나타나는 선행 명사구들은 단순히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위치(장소)'라는 의미보다는 문장 속 행동이 향하는 '도달점'에 가깝다. 즉, 처소의 명사구를 선행사로 갖는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대부분 '일정 위치'를 의미하지만, 행동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인 '도달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어 사용 빈도는 '일정 위치'의 의미가 훨씬 우위에 있다.

- (14) 가. 그 주정뱅이 할배가 고양이 사료에다가 약을 섞었다.
 나. 싱거우면 계란밥에다가 간장을 넣어 봐.
 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에다가 심성도 고우니 인기가 엄청나다.

위의 예문 (14)에서 부사격 조사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구인 '고양이 사료', '계란밥', '미모'는 예문 (12, 13)과는 달리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아니다. (14 가)에서 조사 '-에다가'의 선행 명사인 '고양이 사료'는 약이 섞이는 대상이고, (14 나)에서 '-에다가'의 선행 명사인 '계란밥'은 간장을 넣는 대상이다. 또한, (14 다)에서 '-에다가'의 선행 명사인 '미모'는 고운 심성이 더해지는 대상이다. 이들은 전부 무언가가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선행 명사구가 처소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명사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첨가'의 의미를 가진다.

- (12') 가. 그의 생각은 그녀와 함께 새로 포구가 형성되고 있는 노루목 선창머리에(다) 다방을 차리는 데에 있었다.⁴³⁾
 나. “그런 꽃 집안에(다) 많이 안 심는 법이란다.” 어렸을 적에 산에서 진달래 한 그루를 파다가 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던 것을 생각했다.
 다. 그 사람이 자기 창문에(다) 주로 필기를 해.

- (13') 가. 그까 문배주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문배주 담당한테 애

43) 예문 (12'), (13')의 문장은 꼬꼬마 말뚝치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외의 예문은 전부 본 연구자가 작성한 예문이다.

네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퇴근 시간에 위험하니까...

나. 그 뒤로 내가 학교에(다) 사실 얘기했어.

다. 이제 나라에서 근까 그 소송 거는 사람들 있잖아, 나라에
(다), 내가 담배를 피서 폐암에 걸렸는데 얼마를 배송해라
그런데.

(14') 가. 그 주정뱅이 할배가 고양이 사료에(다) 약을 섞었다.

나. 싱겨우면 계란밥에(다) 간장을 넣어 봐.

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에(다) 심성도 고우니 인기가 엄청나다.

위의 예문 (12'), (13'), (14')는 앞에서 나온 예문 (12), (13), (14)에서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자리에 '-에다가' 대신 '-에(다)'를 대체시킨 것이다. 이들은 예문 (12), (13), (14)가 예문 (12'), (13'), (14')보다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모두 통사·의미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데 어색함이 없다. 이는 본고의 1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연구⁴⁴⁾에서 '-에다가'의 '-다가'는 그 어원을 '닥다, 다그다'로 보는 데 이견이 있을 뿐, 백낙천(1996)을 제외한 모든 선행 연구들에서 '가지다'의 의미를 가진 타동사 '닥다(다그다)'가 그 기능이 약해져서 지금은 '강조'의 의미만을 가지고 쓰이게 되었으며 또한 '가까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같은 부사격 조사인 '-에'나 '-에다'로 대체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용법의 '-에'가 '-에다가'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15) 가. 집안에 경사가 났다.⁴⁵⁾

나.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다. 지금 산에 간다.

라. 그까짓 일에 넘 마음 상하지 마라.

마.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44) 김문웅(1982), 김영희(1975), 백낙천(1996), 成洛秀(1976), 예선희(2015), 張會見(2015), 전후민(2014)

45) 예문 (15)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04'에 해당하는 예문을 발췌한 것이다.

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사.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아. 예전에는 등잔불에 글을 읽었다.
자. 기쁨에 넘치는 나날이었다.
차. 두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 가져라.
카. 그 아버지에 그 아들.
타. 춘향에 성희, 이 도령에 춘수였다.
파.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에 좋은 것이 있다고 들었소.
하. 3에 4를 더하다.

가. *집안에다가 경사가 났다.
나. *진달래는 이른 봄에다가 핀다.
다. *지금 산에다가 간다.
라. *그까짓 일에다가 넘 마음 상하지 마라.
마. *그의 거짓말에다가 속지 마시오.
바. *나는 생각에다가 잠겼다.
사. 이걸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아. 예전에는 등잔불에다가 글을 읽었다.
자. *기쁨에다가 넘치는 나날이었다.
차. *두 사람에다가 하나씩 나눠 가져라.
카. *그 아버지에다가 그 아들.
타. *춘향에다가 성희, 이 도령에다가 춘수였다.
파.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에다가 좋은 것이 있다고 들었소.
하. 3에다가 4를 더하다.

위의 예문 (15)에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에’의 용법들 중에서 ‘-에다가’로 대체되었을 때 비문을 이루지 않는 문장은 (15 사, 아, 하) 세 문장뿐이다. 이 때 (15 사)의 ‘-에’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나타내고, (15 아)는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나타내며, (15 하)는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전에

서 (15 사)와 같은 용법으로 소개된 예문 ‘몸에 좋은 보약’은 ‘-에’를 ‘-에다가’로 대체하면 비문을 이룬다⁴⁶⁾. 그러므로 부사격 조사 ‘-에’의 용법 중 ‘-에다가’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와 ‘첨가’를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 뿐이다. 또한, 모든 사전에서 ‘-에다가’의 준말은 ‘-에다’로 표기⁴⁷⁾하고 있고, ‘-에다가’의 자리에 ‘-에다’를 대체한 예문 (12’), (13’), (14’)에서 어느 것 하나 의미 변동도 없을 뿐 아니라, 비문을 이루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본고 또한 ‘-에다’는 ‘-에다가’의 준말로 본다.

지금까지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처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올 때 반드시 타동사가 함께 쓰이며, 이 때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대부분 ‘일정 위치’이나 추상적인 ‘도달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선행사가 처소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서술어에 자동사·타동사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이 때의 ‘-에다가’는 ‘첨가’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에다가’의 ‘-다가’에 남아있는 성질로 인하여 ‘기준점 강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에다가’는 형용사와의 사용을 금하고, 한 문장 내에서 ‘-에다가’의 중출사용에도 제약이 있다. 또한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에, -에다’로 대체 가능하다.

나. 접속 조사 ‘-에다가’

부사격을 표시하는 조사를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면 둘 이상의 명사구를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 조사⁴⁸⁾라고 한다. ‘-에다가’의 의미 분류를 위해 분석한 대부분의 사전⁴⁹⁾과 말뭉치에 ‘-에다가’는 ‘(부사)격 조사’로만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예로 실린 예문들에는 부사격 조사가 아닌 접속 조사로 분류해야 할 문장들도 다수 보였다.

46) *몸에다가 좋은 보약

47) 본고의 ‘II. 1. 가. 사전 분석’(p.16-24) 참조

48) 황화상(2012: 191)에서는 접속 조사를 ‘둘 이상의 명사구를 접속하는 조사’라고 하였고, 구본관 외(2015:196)에서는 접속 조사를 ‘둘 이상의 체언(구, 절)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라고 기술하였다.

49) 「국어대사전」에서만 [접속 조사 ‘에’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언급되었을 뿐, 다른 사전들에서는 아예 품사 분류가 없거나 ‘부사격 조사’ 범주로만 보았다.

(16) 가. 저기 걸려 있는 블라우스에다가 그 아래 있는 치마에다가 이 셔츠까지 모두 계산해 주세요.⁵⁰⁾

나. 지난 해부터 청년회의소 회장에다가, 개발촉진위원회 총무에다가, 라이온스클럽 회원에다가, 이제 서른두 살일 뿐이다, 벌써 면장이나 지서장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⁵¹⁾

(17) 가. 저기 걸려 있는 블라우스에다가 이 셔츠까지 모두 계산해 주세요.

가'. 그 아래 있는 치마에다가 이 셔츠까지 모두 계산해 주세요.

나. 지난 해부터 청년회의소 회장에다가, 라이온스클럽 회원에다가, 이제 서른두 살일 뿐이다, 벌써 면장이나 지서장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나'. 지난 해부터 개발촉진위원회 총무에다가, 라이온스클럽 회원에다가, 이제 서른두 살일 뿐이다, 벌써 면장이나 지서장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예문 (16 가)에서 각각 조사 '-에다가'에 선행하는 명사구 '저기 걸려 있는 블라우스'와 '그 아래 있는 치마'는 예문 (17 가, 가')처럼 각각 따로 떼어내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예문 (16 나)에서 조사 '-에다가'에 선행하는 세 개의 명사구 '청년회의소 회장', '개발촉진위원회 총무', '라이온스클럽 회원' 또한 예문 (17 나, 나')처럼 떼어도 문장 성립에 무리가 없다. 즉, 예문 (16 가, 나)는 각각 (17 가, 가')와 (17 나, 나')를 합쳐 놓은 접속문이다. 김진수(1987:23)에서는 접속된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적격성을 해치지 않으며 의미의 차이도 수반하지 않는 접속문을 대등접속문이라고 하였다.

50) 「고려대사전」에 「③ 둘 이상의 체언의 뒤에 반복적으로 붙어, 여러 가지 사실을 열거하여 늘어놓음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의 예문으로 나온 문장을 발췌하였다.

51) 꼬꼬마 말뚱치에서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문어 용례 중 한 문장을 발췌하였다.

(18) 가. 그 아래에 있는 치마에다가 저기 걸려 있는 블라우스에다가 이 셔츠까지 모두 계산해 주세요.

나. 지난 해부터 개발촉진위원회 총무에다가, 청년회의소 회장에다가, 라이온스클럽 회원에다가, 이제 서른두 살일 뿐인디, 벌써 면장이나 지서장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나'. 지난 해부터 라이온스클럽 회원에다가, 청년회의소 회장에다가, 개발촉진위원회 총무에다가, 이제 서른두 살일 뿐인디, 벌써 면장이나 지서장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예문 (16)의 문장은 예문 (18)의 문장으로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함은 물론이고, 문장의 의미에도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예문 (16)의 문장은 대등접속문임이 분명하고, 그 문장 속에서 명사구들을 이어주는 조사 '-에다가'는 접속 조사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고는 접속 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 그 의미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19) 가. 그는 밥에다가 빵에다가 과일에다가 잔뜩 먹었다.

나. *그는 밥에다가 빵에다가 과일을 잔뜩 먹었다.

다. *그는 밥에다가 빵에다가 과일에다가를 잔뜩 먹었다.

라. 그는 밥에다가 빵에다가 과일까지 잔뜩 먹었다.

마. *그는 밥에다가 빵에다가 과일에다가까지 잔뜩 먹었다.

위의 예문 (19)는 모두 명사구 접속 기능을 하는 '-에다가'가 들어간 문장이다. (19 가)에서 '-에다가'는 선행명사구인 '밥'과 '빵'에 이어 마지막 피접속명사구인 '과일'에까지 붙어 <에다가, 에다가>형태의 대등접속문을 이루고 있다. (19 나)에서는 마지막 피접속명사구인 '과일' 뒤에 '-에다가' 대신 격조사 '을'이 붙어 <에다가, 격조사>형태를 보이며 이는 비문을 이룬다. 언뜻 들으면 문장 성립이 되는 듯싶지만 마지막항까지 '-에다가'가 붙은 (19 가)와는 달리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19 다)에서는 마지막 피

접속명사구인 ‘과일’ 뒤에 접속 조사 ‘-에다가’와 격조사 ‘-를’이 중첩되어 <에다가, 에다가+격조사>형태를 이루며 이 또한 비문을 형성한다. (19 라)에서는 마지막 피접속명사구인 ‘과일’ 뒤에 ‘-에다가’ 대신 보조사 ‘-까지’가 쓰여 <에다가, 보조사>형태를 이루었으며 이는 비문을 형성하지 않는다. (19 마)에서는 마지막 피접속명사구인 ‘과일’ 뒤에 ‘-에다가’와 보조사 ‘-까지’가 중첩 사용되어 <에다가, 에다가+보조사>형태를 이루며 이 문장은 비문을 형성한다. 즉, 접속조사 ‘-에다가’구문은 <에다가, 에다가> 또는 <에다가, 보조사>형태로 나타나며⁵²⁾, 예문 (19)에서와 같이 문장 안에서 중출이 가능하다.

(20) 그는 가수에다가 영화배우에다가 예능인이다.

(20) ' 가. 그는 가수이다.

나. 그는 영화배우이다.

다. 그는 예능인이다.

(20) " 가. 그는 예능인에다가 영화배우에다가 가수이다.

나. 그는 영화배우에다가 예능인에다가 가수이다.

다. 그는 영화배우에다가 가수에다가 예능인이다.

라. 그는 가수에다가 예능인에다가 영화배우이다.

마. 그는 예능인에다가 가수에다가 영화배우이다.

위의 예문 (20)은 조사 ‘-에다가’가 쓰인 문장이고, 이 문장은 예문 (20) ' 와 같이 각 항목들을 분리해서 문장을 만들어도 비문이 형성되지 않고, 예문 (20) " 처럼 피접속명사구인 ‘가수’, ‘영화배우’, ‘예능인’의 순서를 바꾸어도 전부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20)은 접속 조사 ‘-에다가’로 접속된 대등접속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에다가, 에다가> 또는 <에다가, 보조사>형태가 아닌 <에다가, ∅>형태이다. 이것은 이

52) 김진수(1987:61-62), 이정화(1998:26)에서는 ‘-에다가’는 <에다가, 에다가> 형식을 이룰 때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고 하였으며, 유경화(2013:44-45)에서는 ‘에다가’의 통합양상이 <에다가, 에다가>, <에다가, 격조사>, <에다가, 보조사>, <에다가, 에다가+격조사>, <에다가, 에다가+보조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장의 서술어가 일반 타동사가 아닌 ‘-이다’로 실현된 문장이기 때문이다. 즉, 접속 조사 ‘-에다가’는 <에다가, 에다가> 또는 <에다가, 보조사>형태의 문장을 형성하지만, 서술어가 ‘-이다’일 경우에 한하여 <에다가, ∅>형태도 형성한다. 지금까지 접속 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접속 조사 ‘-에다가’의 의미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1) 가. 한국인 입맛에는 빵이나 스테이크보다는 밥에다가 반찬에다가 찌개에다가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잖아.

나. TV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다 켜 놓고 뭘 보는 거니?

다. 그는 공부에다가 운동에다가 못 하는 게 없다.

위의 예문 (21 가)에서 조사 ‘-에다가’에 선행하는 피접속명사구인 ‘밥’, ‘반찬’, ‘찌개’는 이렇게 먹는 대상들의 나열을 나타내고, (21 나)에서 조사 ‘-에다가’의 피접속명사구인 ‘TV’와 ‘컴퓨터’는 켜 놓은 대상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또한 (21 다)에서 ‘-에다가’의 피접속명사구인 ‘공부’와 ‘운동’은 그가 잘 하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예문 (21)의 문장들은 접속 조사 ‘-에다가’의 전형적인 문형으로 대등접속문을 이루고 있으며, 전부 문장 속 의미 항목들을 대등한 조건으로 ‘나열’하고 있다. 즉, 접속 조사 ‘-에다가’의 대표적인 의미 항목으로는 ‘나열’을 들 수 있다.

(22) 가. 요즘은 논문 준비에다가 육아까지 일이 겹쳐서 정신이 없어요.

나. 그는 교수에다가 인기 연기자예요.

위의 예문 (22)⁵³⁾는 의미 항목들의 단순 나열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22 가)의 피접속명사구인 ‘논문 준비’와 ‘육아’는 나열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대등접속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

53) 예문 (22)의 문장들은 본고의 II장 2. 가.에서 ‘첨가’ 항목의 부사격 조사 ‘-에다가’를 포함한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예문 (22)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에다가’는 대표적 접속 조사인 ‘와/과, (이)랑, 예’로 대체해도 의미 변화가 없으며, ‘나열’의 의미인 접속 조사 <에다가, 에다가>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어도 의미 변화가 없어 앞의 항목과 뒤의 항목을 접속시켜주는 접속 조사 ‘-에다가’로 보아도 무방하다.

지만, ‘논문 준비’와 ‘육아’의 단순 나열이라기보다는 ‘논문 준비’에 ‘육아’가 더해져 정신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2 나)에서의 피접속명사구인 ‘교수’와 ‘인기 연기자’도 나열 순서가 바뀌어도 큰 영향은 없으나 그는 ‘교수’인데 더군다나 ‘인기 연기자’이기도 하다는 뜻의 첨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접속 조사 ‘-에다가’는 피접속명사구의 대등한 ‘나열’을 의미하고, A항목에 B항목을 ‘첨가’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접속 조사 ‘-에다가’는 아래의 예문 (21’ , 22’)처럼 접속 조사 ‘-에’⁵⁴⁾나 ‘-에다’로 대체 가능하다.

- (21) ’ 가. 한국인 입맛에는 빵이나 스테이크보다는 밥에(다) 반찬에
(다) 찌개에(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잖아.
나. TV에(다) 컴퓨터에(다) 다 켜 놓고 뭘 보는 거니?
다. 그는 공부에(다) 운동에(다) 못 하는 게 없다.

- (22) ’ 가. 요즘은 논문 준비에(다) 육아까지 일이 겹쳐서 정신이 없
어요.
나. 그는 교수에(다) 인기 연기자예요.

예문 (21) ’ , (22) ’ 는 접속 조사 ‘-에다가’가 접속 조사 ‘-에’나 ‘-에다’로 대체되어도 의미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사격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접속 조사 ‘-에’가 ‘-에다가’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23) 가. 그의 달리기 실력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올림픽
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 새로 산 옷을 보고 그녀가 어찌나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던
지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 (23) ’ 가. *그의 달리기 실력은 발전에다가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54)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사 ‘에04’의 격조사 외 두 번째 의미로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잔칫집에서 밥에 떡에 술에 아주 잘 먹었다./아버지가 책에 연필에 장난감에 이것저것 많이 사 주셨다.]’라고 기술하였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 *새로 산 옷을 보고 그녀가 어쩌나 칭찬에다가 칭찬을 거듭하던지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위의 예문 (23)에서는 같은 명사가 반복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접속 조사 ‘-에’에 선행하는 피접속명사(구)가 동일하게 반복 사용되는 문장에서의 ‘-에’는 예문 (23) ‘처럼 접속 조사 ‘-에다가’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비문을 형성한다. 즉, 접속 조사 ‘-에다가’는 같은 접속 조사인 ‘-에’나 ‘-에다’로 대체 가능하나, 선행 명사의 반복 사용이 일어나는 구문에서의 ‘-에’는 ‘-에다가’로 대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접속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접속 조사 ‘-에다가’는 <에다가, 에다가> 또는 <에다가, 보조사>형태의 문장을 형성하지만, 서술어가 ‘-이다’일 경우에 한하여 <에다가, ∅>형태의 문장도 형성한다. 문장 내에서 ‘-에다가’의 중출이 가능하며, 접속 조사 ‘-에(다)’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접속 조사 ‘-에다가’의 대표적 의미 항목은 ‘나열’이며 ‘첨가’의 의미도 가진다. 다음은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3>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

품사 범주	의미 분류	
부사격 조사	처소	일정 위치
		(추상적) 도달점
	처소 ×	첨가
	기타	강조
접속 조사	나열	
	첨가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와 8종 사전에서 기술한 ‘-에다가’의 의미 중복도를 통하여 의미를 분류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의

미 항목의 범주화를 위해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의 <표 13>과 같이 품사 범주에 따른 ‘-에다가’의 의미 항목을 분류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에다가’의 교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에다가’의 의미 분류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 선정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전치사가 없고, 그에 대응되는 후치사 개념의 조사가 발달하였다. 모국어인 영어와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와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규칙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는 대조 분석적 관점이 필요하다⁵⁵⁾.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조사 ‘-에다가’에 대응하는 요소를 찾아 의미 관계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선정 대상 및 방법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별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응 요소의 선정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 중에서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이나 ‘-에다가’에 대한 한영 대조 분석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4종의 한영사전을 분석하고, 현대 영어 문법서인 Diane Larsen-Freeman, Marianne Celce-Murcia(2015)에서 ‘-에다가’와 관련있다고 추측되는 요소인 관사(Articles), 전치사(Prepositions), 접속사(Conjunction) 등을 검토하였다. 한영사전과 Freeman & Murcia(2015)을 통해 영어 대응 요소를 선정하고 2장에서 분류한 ‘-에다가’의 의미 항목에 따라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

55) 이숙(2009:180)에서는 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사소통중심교육) 교육에서의 문법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모국어의 규칙과 목표언어의 규칙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중간언어의 화석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명시할 수 있는 대조분석적 연구가 제 2언어 교육론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하고자 한다. 먼저, 대응 요소 선정을 위해 사용한 한영사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4> 분석한 한영사전 목록

사전명	저자(출판 연도)	출판사	비고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0)	(주)두산동아	이하 「프라임한영」
ET-house 능률한영사전	능률사전편찬연구소 (2006)	능률교육	이하 「능률한영」
엣센스 한영사전	민중서림편집국 (2016)	民衆書林	이하 「엣센스한영」
현대한영사전	삼성서관편집부 (2005)	삼성서관	이하 「현대한영」

위의 4종의 한영사전 중 「프라임한영」⁵⁶⁾은 ‘-에다가’의 대응 요소로 전치사 5가지를 기술해 놓았고, 「능률한영」⁵⁷⁾은 3가지의 전치사로 표시하고, 「엣센스한영」과 「현대한영」⁵⁸⁾ 또한 3가지의 전치사로 표기해 놓았다. 우선, 한영사전에 제시된 ‘-에다가’의 영어 대응 요소와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프라임한영」

대응 요소: into, onto, upon, for, to

해당 예문: 종이에다가 쓰다 write it (down) on paper

책상 위에다가 책을 놓다 put a book on the desk

56) 「프라임한영사전」에는 표제어 중에 ‘-에다가’는 없었으나 ‘-에다가’의 준말인 ‘-에다’가 표제어로 있어서 그것을 ‘-에다가’와 동일하게 보고 그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57) 「능률한영」의 표제어에는 ‘-에다가’가 없어서 본 연구자가 표제어 ‘-에’의 항목 중 ‘-에다가’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따로 추출했다.

58) 「엣센스한영」과 「현대한영」에서도 표제어는 ‘-에다’로 되어있어 그 뜻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벽에다가 지도를 걸다 hang a map on[to] the wall

5에다가 6을 보태다 add 6 to 5

무엇에다가 쓰느냐 What is it used for?

「 능률한영 」

대응 요소: in, into, on

해당 예문: 벽에다가 그림을 걸다 hang a picture on the wall

이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세요 Please write your
name on this paper

돼지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다 put a coin into a piggy
bank

이곳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Don't dump trash in
this area

「 엡센스한영 」

대응 요소: at, in, on

해당 예문: 개에다가 돌을 던지다 throw a stone at a dog

벽에다가 걸다 hang ((a thing)) on the wall

소금에다가 절이다 preserve in salt

「 현대한영 」

대응 요소: on, for, to

해당 예문: 종이에다가 쓰다 write it (down) on paper

한영사전에서 표제어 ‘-에다가’의 대응어로 제시된 영어 표현들은 그 종류는 조금씩 달랐으나 모두 전치사들이었고 예문으로 제시된 문장들에 쓰인 ‘-에다가’는 한 문장만 제외하고는 전부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내용들이었다. 이것으로 한영사전에서는 대부분 ‘NP에다가 V하다’(일정 위치)형의 ‘-에다가’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영사전에서 제시된 ‘-에다가’의 대응 요소는 다음 <표 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5> 한영사전에 제시된 ‘-에다가’의 대응 요소

사전	대응 요소	예문 제시 (횟수)
프라임한영	into	.
	onto	on(to) (3)
	upon	.
	for	for (1)
	to	to (1)
능률한영	in	in (1)
	into	into (1)
	on	on (2)
엣센스한영	at	at (1)
	in	in (1)
	on	on (1)
현대한영	on	on (1)
	for	.
	to	.

4종의 한영사전에 기술된 ‘-에다가’의 영어 표지는 총 8가지의 전치사로 ‘on(3)⁵⁹⁾, in(2), into(2), for(2), to(2), onto(1), upon(1), at(1)’이며 제시된 예문은 ‘on(to)(7)⁶⁰⁾, in(2), to(1), for(1), into(1), at(1)’으로 일정한 위치나 장소 앞에 붙이는 전치사 ‘on’이 가장 많이 기술되었다. 조사 ‘-에다가’가 ‘일정 장소’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에다가’의 의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2장을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영어 문법서⁶¹⁾를 통해 한 번 더 영어 대응 양상 중 표지가 있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용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59)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용례의 예문이 제시된 횟수이다.

60) 전치사 ‘on’을 사용해 기술한 문장은 6개, ‘onto’를 사용해 기술한 문장은 1개였다.

61) Diane Larsen-Freeman, Marianne Celce-Murcia(2015:281-507), The Grammar Book: Form, Meaning, and Use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3rd Edition

(24) 책상 위에다가 놓아 주세요. (일정 위치)

Please put it on (top of) the desk.

(25) 사실 내가 학교에다가 얘기했어. ((추상적) 도달점)

To tell the truth, I told it to the school.

(26) 그는 이번 달에 급여에다가 수당도 받는다. (첨가)

He gets commission on top of his salary.

(27) 그는 가수에다가 영화배우에다가 예능인이다. (나열)

He is a singer, actor, and entertainer.

(28) 어디에다가 놓을까요? (일정 위치)

Where shall I put it?

예문 (24)의 문장은 ‘-에다가’의 의미별 용례에서 가장 고빈도를 차지했던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일정 위치’를 나타낼 때는 4종의 한영사전 검토 결과와 같이 전치사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리고 (25)번 문장은 많은 차이가 나긴 했으나 말뭉치에서 ‘일정 위치’ 다음으로 구어에서 자주 쓰이던 의미인 ‘(추상적) 도달점’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추상적) 도달점’ 또한 넓게 보면 도달할 어떠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대등 양상 또한 전치사로 나타난다. 예문 (26)은 무언가 더해지는 ‘첨가’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에 더하여/게다가’등으로 해석되는 접속사 ‘on top of’가 쓰였다. 이것은 (24)번 문장의 ‘on (top of)’와 형태는 같으나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이다. (24)번의 ‘on top of’는 전치사 ‘on’과 같은 의미인 ‘~의 위에’라는 뜻으로 적은 것이다. 또한, 예문 (27)은 ‘나열’을 의미하는 ‘-에다가’가 쓰인 문장이다. 이 경우는 등위접속사 ‘and’를 써서 한국어 표현을 대신했다. ‘-에다가’의 의미 분류 체계별 영어 대응 요소를 떠올리며 문장을 만들다보니 예문 (24)에 이어 (28) 형태가 떠올랐다. 의문문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조사 ‘-에다가’가 쓰인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 형식까지 생각한다면 영어 대응 요소에 의문사 또한 포함시킬 수 있

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나). ‘-에다가’의 영어 대응 요소

1. 전치사 (on, at, in, to ...)
2. 등위접속사 (and)
3. 등위상관접속사구 (in addition to, on top of, as well as ...)
4. 기타 (의문사, 관사⁶²⁾ ...)

위의 영어 대응 요소들을 통하여 앞서 2장에서 분류한 ‘-에다가’의 의미 항목에 따른 용례를 만들고 다시 한 번 그 대응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응 표현 분석을 위한 용례는 주로 국내에서 편찬된 영어사전들⁶³⁾의 예문을 편집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2장에서 예문으로 사용된 표현들을 다시 사용하였다. 또한 본고에 쓰인 모든 영어 표현들은 미국과 호주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두 명의 원어민을 통해 검증받은 문장들임을 밝힌다. 영어 문장을 검증해 준 두 명 중 한 명은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2년간 일본과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경험도 있는 30대 미국인이다. 나머지 한 명 또한 한국에서 2~3년간 거주하며 영어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호주 국적의 30대이며 그는 한때 호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다. 이들은 e-mail과 SNS를 통해 본고의 영어 예문들을 받아서 읽어본 후 문법적 검증 외에도 현지인들이 주로 쓰는 구어적 표현들까지 예를 들어가며 꼼꼼하게 검증해주었다. 각 예문의 각주에 그에 따른 설명을 첨부하였다.

2. 의미 기능에 따른 대응 표현

62) 기타 항목에 ‘관사’가 등장한 것은 ‘-에다가’의 의미 항목에서 기타 항목으로 보았던 ‘강조’ 부분에 문장에 따라 한정사로서의 관사 ‘the’가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문 (28)에서 ‘where’을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추가하게 되었다.

63) 본고 III장 1의 <표 14>(p. 49) 참고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문법 범주에 따라 크게 ‘일정 위치’와 ‘나열’로 나눌 수 있고, 그 의미 항목에 따라 영어 대응 표현은 달라진다.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과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영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오류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⁶⁴⁾. 따라서 본 연구는 ‘-에다가’의 문법 범주별 의미 항목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부사격 조사 ‘-에다가’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가장 고빈도 의미 항목은 ‘일정 위치’이며 그 외에도 ‘(추상적) 도달점’과 ‘첨가’가 있고 기타 의미 항목으로 ‘기준점 강조’가 있다. 먼저, 의미 항목별 대응 표현을 용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 (29) 가. 책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 놓았다.
 가 ’. I wrote my name down into the book.⁶⁵⁾
 나. 책을 책상 위에다가 놓았다.
 나 ’. I put the book on the top of the desk.⁶⁶⁾
 다. 나는 어깨에다가 문신을 했다.
 다 ’. I had a tattoo on my shoulder.
 라. 무엇에다가 쓰느냐?⁶⁷⁾
 라 ’. What is it used for?

64) 허용 외(2013:5)에서는 대조 분석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두 언어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외국어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과 오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하며,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것은 대조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차이점의 양과 같다고 하였다.

65) 맞는 문장이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book)과 관련된 건 ‘into’보다는 ‘in’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66) 이 문장 또한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보다는 ‘on top of the desk’라고 한다고 한다.

67) 「프라임한영」에 나온 예문임.

마. 이 곳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⁶⁸⁾

마'. Don't dump trash in this area.

바. 내가 어제 사진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

바'. I uploaded the photo onto my homepage yesterday.⁶⁹⁾

사. 유리조각에다가 손가락을 베었어.

사'. I cut my finger on a piece of glass.

위의 예문 (29)에 나온 문장들에서 ‘-에다가’는 모두 ‘일정 위치’를 나타낸다. 의미는 모두 ‘일정 위치’로 동일하지만 그 영어 대응 표현들은 ‘into, on, for, in, onto’ 등으로 모두 다른 형태이다. 영어 대응 표현으로 쓰인 ‘into, on, for, in, onto’ 등은 ‘안쪽으로의 이동, ~위(접촉), ~을 위해서, ~안, ~위쪽으로의 이동’ 등의 세부 의미로 나눌 수는 있지만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흔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하면 ‘at, in, on⁷⁰⁾’ 만을 생각하지만 위의 문장들만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사 ‘-에다가’에 대응하는 전치사의 종류는 많긴 하나 이는 ‘-에다가’의 선행 명사구에 해당하는 체언을 보면 무슨 전치사가 쓰일 지를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는 ‘-에다가’가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을 때 그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대응해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의미가 있다.

(30) 가. 귀중품은 어디에다가 맡겨요?⁷¹⁾

가'. Where can I check my valuables?

68) 「능률한영」에 나온 예문임.

69) 이 문장 또한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 ‘I uploaded it to my homepage.’, ‘I uploaded it to my website.’, ‘I uploaded it to my instagram.’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에다가’의 대응 표현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0) 정형정(2013:101)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은 Korea나 city처럼 시작과 끝의 범위가 명확한 장소에 쓰고, at은 in처럼 명확한 경계와 범위를 정할 수 없는 모든 장소에 사용하며 on은 접촉개념을 갖고 있는 장소에 쓴다고 하였다.

71) 예문 (30)~(33)의 문장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영어사전(<http://endic.naver.com>)에 나온 문장들을 본 연구자가 조금씩 편집해서 사용하였다.

나. 이 카트를 어디에다가 갖다 놓아야 해요?

나'. Where should I return this cart?

다. 넌 사진을 어디에다가 보관해?

다'. Where do you keep your photos?

위의 예문 (30)은 모두 '일정 위치'를 묻는 의문문이다. 이처럼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에다가'가 물어보는 말로 나타날 때에는 영어 표현으로 대응시킬 때 의문사 'where'을 쓸 수 있다. 하지만 'where'이 들어간 모든 문장이 '-에다가'문장이 될 수는 없다.

(31) 가. Where did you live before that?

가'. 그 이전에는 어디에(다가) 살았어?

나. Where will the man be during the day?

나'. 남자는 하루 종일 어디에(다가) 있을 것인가?

예문 (31)도 (30)번 예문들처럼 where로 물어보는 형태이고 '일정 위치'를 물어보는 문장이지만 (31 가', 나')처럼 '-에다가'가 붙으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처럼 '-에다가'가 '일정 위치'의 의미를 갖고 물어보는 형태인 '어디에다가'가 쓰일 때는 영어 대응 표지로 의문사 'where'이 쓰이되, 그 문장 안에 같이 쓰이는 동사가 'live'나 'be'동사일 경우는 제외된다.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의문문의 영어 대응 표현이 'where'만 있는 것은 아니다.

(32) 가. 내가 돈을 무엇에다가 써야 하니?

가'. What do I use for money?⁷²⁾

예문 (32)는 (29 라, 라')와 같이 '무엇에다가'라고 표현된 문장이다. '일정 위치'를 물어볼 때는 (30)처럼 '어디에다가' 혹은 (32)처럼 '무엇에다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에다가'라고 할 경우에는 위의 예문에서와

72) 이 문장의 경우 미국인 검증인은 맞는 문장이라고 하였고 호주에서는 'money'가 아닌 'currency'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에다가'의 대응 표현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같이 의문사 ‘what’과 함께 전치사 ‘for’도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평서문에서처럼 다른 전치사가 들어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3) 가. What was the phone call about?

가’. 무엇에(다가) 관한 전화였죠?

나. What does this insurance protect against?

나’. 이 보험은 무엇에(다가) 대한 보험인가요?

위의 예문 (33)에서와 같이 ‘what’에 ‘for’가 아닌 다른 전치사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무엇에다가’라고 해석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지금까지 ‘일정 위치’를 의미하는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들을 살펴 보았다. 평서문일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in, on, onto, into’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의문문일 경우에는 의문사 ‘where, what’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where’의 경우에는 ‘live, be’동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고, ‘what’의 경우에는 전치사 ‘for’와 함께 쓰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34) 가. 사실 내가 학교에다가 얘기했어.

가’. To tell the truth, I told it to the school.⁷³⁾

나. 그는 그 TV프로그램에다가 열정을 쏟았다.

나’. He brought passion to the TV program.

다. 그들은 이번 합작 사업에다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 They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is joint venture.

위의 예문 (34)에 나온 문장들은 모두 ‘(추상적) 도달점’을 의미하는 ‘-에다가’가 포함된 문장이다. 이 때의 영어 대응 표현들은 영어 전치사 중에서도 어느 지점까지의 ‘이동’을 의미하는 ‘to’와 어느 지점을 향한 ‘방향’ 또는 무언가를 위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for’가 쓰임을 알 수 있다.

73) 이 문장은 호주 김증인은 ‘I told it to the school.’보다는 ‘I sent it to the school administration.’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본고에서 ‘(추상적) 도달점’을 의미하는 ‘-에다가’의 대응 표현으로 제시한 ‘to’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35) 가. 그 주정뱅이 할배가 고양이 사료에다가 약을 섞었다.
 가' . The old drunk put drugs into the cat food.
 나. 싱거우면 계란밥에다가 간장을 넣어 봐.
 나' . If it is too bland, add some soy sauce into the
 Gyeranbap(egg rice).⁷⁴⁾
 다. 그는 이번 달에 급여에다가 수당도 받는다.
 다' . He gets commission on top of his salary.

- (36) 가. 하나에다가 둘을 더하면 셋이다.
 가' . Two added to one makes three.
 나. 술이 독하면 거기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드세요.
 나' . Add some ice to it if the booze is strong.

위의 예문 (35, 36)에 나온 문장들은 모두 ‘첨가’의 뜻을 가진 ‘-에다가’가 포함된 문장이다. (35)에서의 문장들은 모두 ‘A에다가 B가 더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이므로 영어로 대응하면 전치사 ‘into’와 ‘~에 더하여, 게다가~’의 뜻을 가진 ‘on top of’⁷⁵⁾가 쓰임을 알 수 있다. (36)의 문장들 또한 ‘첨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전치사 ‘to’가 쓰이고 있다. 전치사 ‘to’가 ‘첨가’의 ‘-에다가’를 대신할 경우에는 ‘add A to B’로 ‘A를 B에다가 더하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add’와 함께 쓰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37) 가.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무대에다가 비유했다.
 가' . Shakespeare compared the world to a stage.
 나. 흔히들 착한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한다.
 나' . Good-natured people are often compared to sheep.

74) 이 문장의 경우, 호주에서는 ‘into’ 대신 ‘to’를 써야 된다고 하였고, 미국에서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보통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into’보다는 ‘to’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into’를 ‘to’로 바꾼다고 하여도 예문 (36)과 같이 ‘add A to B’ 형태의 문장이 되므로 본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75) ‘on top of’ 대신 같은 뜻을 가진 접속사구 ‘in addition to’로 대체 사용도 가능하다.

위의 예문 (37)은 ‘기준점 강조’를 의미하는 ‘-에다가’가 쓰인 문장들이다. (37)에서 조사 ‘-에다가’는 비교 또는 비유하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준점 강조의 의미로 쓰인 ‘-에다가’를 영어 표현으로 대응시킬 때는 전치사 ‘to’가 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준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37 가’, 37 나’)와 같이 특별히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 compare와 함께 쓰여 ‘A를 B에다가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compare A to B’형태로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들을 용례를 통해 알아 보았다. 다음은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6> 부사격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

의미 항목		영어 대응 표현
처소	일정 위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in, on, onto, into, ...)
	일정 위치(의문)	어디에다가: Where(조동사)~? 무엇에다가: What ... for?
	(추상적)도달점	이동,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to, for ...
처소 ×	첨가	전치사 into, to (add A to B) 상관접속사(on top of, in addition to...)
기타	기준점 강조	to (compare A to B)

위의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대체로 영어의 전치사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따라 ‘일정 위치’를 나타낼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쓸 수 있고, ‘(추상적) 도달점’을 의미할 때는 전치사 중에서도 to나 for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빈도는 낮지만 ‘첨가’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안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전치사 ‘into’나 하나 더 더한다는 첨가의 의미를 가진 상관접속사⁷⁶⁾(on top of, in addition to 등)

가 쓰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에다가’의 영어 대응 요소를 생각할 때 ‘기준점 강조’ 의미 항목의 대체 요소로 떠올랐던 한정사로서의 관사나 소유격이 전치사 뒤, 체언으로 쓰이는 명사 앞에 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어 어순을 따질 때 나올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나. 접속 조사 ‘-에다가’

접속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크게 ‘나열’과 ‘첨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미 항목별 대응 표현을 용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 (38) 가. 그는 가수에다가 영화배우에다가 예능인이다.
 가’. He is a singer, actor, and entertainer.
 나. 그는 밥에다가 빵에다가 과일에다가 잔뜩 먹었다.
 나’. He has started stuffing his face with rice, bread and fruit.
 다. 청소에다가 빨래에다가 설거지는 날 피곤하게 만든다.
 다’. Cleaning, laundry, and washing the dishes make me very tired.

위의 예문 (38)은 접속 조사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나열’에 해당되는 문장들이다. 이처럼 ‘-에다가’가 대등한 항목들의 단순 나열을 열거할 때에는 영어의 등위접속사 ‘and’로 표현할 수 있다. (38)번 문장들에는 모두 ‘A, B, and C’형태로 나열되었으나 그 형태는 문장에 따라 ‘A and B’ 또는 ‘A, B and C’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접속 조사 ‘-에다가’가 ‘첨가’의 뜻을 나타낼 때의 용례이다.

76) 영어의 접속사는 크게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종속접속사로 나눌 수 있다. 등위접속사는 and나 but처럼 두 개 이상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말하고, 상관접속사는 서로 짝을 지어서 같이 움직이는 접속사를 말한다.

(39) 가. 요즘은 논문 준비에다가 육아까지 일이 겹쳐서 정신이 없어요.

가'. I'm swamped with preparation for a paper and childcare these days.

나. 그는 교수에다가 인기 연기자예요.

나'. He is a professor and a big star.

다. 수지는 뛰어난 미모에다가 성격도 좋아요.

다'. On top of having a pretty face, Suji even has a good personality.

라. 떡볶이에다가 김밥이 어울려요?

라'. In addition to tteokpokki, would kimbap go well?

위의 예문 (39)는 모두 ‘첨가’를 의미하는 접속 조사 ‘-에다가’가 쓰인 문장들이다. 접속 조사 ‘-에다가’가 ‘첨가’의 의미를 가질 때 영어로는 등위접속사 ‘and(A and B 형태)’와 부사격 조사의 그것과 같은 상관접속사구(on top of/in addition to)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접속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

의미 항목	영어 대응 표현
나열	등위접속사 and (A and B/A, B and C/A, B, and C...)
첨가	등위접속사 and (A and B), 등위상관접속사구 (on top of/in addition to...)

접속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은 위의 <표 17>과 같이 대체로 등위접속사 ‘and’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첨가’의 의미를 가질 때는 부사격 조사에서의 ‘첨가’의 의미와 같이 등위상관접속사구로도 대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문법서와 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영어

대응 요소를 선정하고 그 대응 표현을 분석하였다. ‘-에다가’의 의미 항목별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에다가’의 교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의미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일정 위치’를 나타내는 영어 대응 표현은 on, at, in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둘째, ‘-에다가’가 ‘일정 위치’를 나타내면서 의문문 형태로 쓰일 때는 영어의 의문사 where과 what을 대응 표현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where(어디에다가)의 경우, ‘live(살다)’나 ‘be(있다)’동사와는 함께 쓰일 수 없으며 what(무엇에다가)의 경우는 전치사 ‘for’와 함께 쓰인다는 제한이 있다.

셋째, ‘-에다가’가 ‘(추상적) 도달점’을 의미할 때는 영어 전치사 중에서도 ‘이동’, ‘방향’, 또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인 ‘to’와 ‘for’가 쓰이며, ‘첨가’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영어에서도 ‘첨가’의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 ‘into’가 쓰이며 ‘add A to B(A를 B에다가 더하다)’형태의 ‘to’가 쓰인다. 또한, ‘기준점 강조’를 나타내는 ‘-에다가’는 ‘compare A to B(B를 A에다가 비교하다)’형태의 ‘to’로 대체하여 나타낼 수 있다.

넷째, ‘-에다가’가 접속 조사로 쓰일 때는 공통적으로 영어 대응 표현으로 등위 접속사 ‘and’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에다가’가 ‘나열’의 의미 항목을 가질 때에는 ‘A and B/ A, B and C/ A, B, and C’ 등 어느 형태로든 문장 안에서 ‘and’가 존재할 수 있지만 ‘첨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A and B’형태의 ‘and’나 ‘게다가, ~이외에도, ~에 더하여’등의 의미를 갖는 ‘in addition to/ on top of...’와 같은 등위상관접속사구로 대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 항목별 영어 대응 표현들은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실제적인 용례를 제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나 사전에 기술된 ‘-에다가’의 의미를 제시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선별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모국어로 직접적인 대응 표현을 알려주며 교수하는 것이 중고급으로 갈수록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초급에서는 영어 대응 표현을 직접 알려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강사가 문법 범주별 의미 항목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을 알고 있다면

그 의미 설명이나 예문 설정에 있어 더 용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에도 좋을 것이다.



IV. 한국어 교재에서의 ‘-에다가’의 제시 양상

언어 교수 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습자가 배운다고 할 때, 교재는 그 학습내용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도구이며 수업의 매개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에다가’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및 방법

현재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학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출판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교재들의 경우 대부분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어휘 · 문법이 분리되지 않고 한 권에 통합된 통합형 교재들이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한국어 통합형 교재 5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에다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에다가’를 초급 어휘로 분류해 놓았는데 한국어 교재에서도 초급 단계에 ‘-에다가’를 제시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18> 분석한 한국어 교재 목록

한국어 교재명	저자 (출판 연도)	출판사
---------	------------	-----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센터(2014)	교보문고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4)	문진미디어
연세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2013)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열린 한국어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 (2013)	하우

2. 분석 결과

위와 같이 4종의 대학교재와 1종의 범용 교재를 분석한 결과 조사 ‘-에다가’를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연세 한국어」 1종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에다가’를 ‘-에’ + ‘-다가’로 보는 의견에 따라 위의 교재들에서 ‘-에’, ‘-다가’, ‘-에다가’ 뿐만 아니라 이형태인 ‘-는 데다가’의 제시 현황까지 살펴 보았다.

<표 19>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다가’ 관련 문법 요소

교재	제시된 문법 요소 ⁷⁷⁾
재미있는 한국어 1	-에 가다, 에(time), -에 있다/없다, 에
재미있는 한국어 3	-다가
재미있는 한국어 4	-에다가 -까지 (-는 데다가) ⁷⁸⁾
서울대 한국어 1A	N에

서울대 한국어 2A	V-다가
연세 한국어 1-1	에 ¹ , 에 ²
연세 한국어 2-1	-다가
연세 한국어 2-2	-에다가, -는 데다가
이화 한국어 1-1	에(방향), 에(위치), 에(시간)
이화 한국어 2-2	-다가
이화 한국어 3-2	-(으)ㄴ /는 데다가 (N+에다가)
열린 한국어 초급1	에(시간), -에 있다/없다, -에 가다/오다, 에(단위)
열린 한국어 중급1	-는 데다가, -다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종의 교재 모두에서 ‘-에’와 ‘-다가’는 제시되었으나 ‘-에다가’를 문법 항목으로 따로 제시한 교재는 「연세 한국어」 뿐이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한국어」에는 ‘-에다가 -까지’의 형태로 ‘-에다가’가 제시되었고, 「이화한국어」에는 ‘-(으)ㄴ /는 데다가’ 형태에서 ‘N+에다가’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열린한국어」에서는 ‘-는 데다가’ 형태만 제시되었다.

위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에다가’의 의미는 주로 ‘일정 위치’와 ‘첨가’였으며 제시된 영어 대응어는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의 전치사 ‘in’과 ‘on’이었다. 또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초급 어휘로 선정된 ‘-에다가’를 초급 단계에서 제시한 교재는 「연세 한국어」 뿐이었고 나머지 두 교재⁷⁹⁾는 중급 단계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제시된 ‘-에다가’의 형태나 의미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0>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다가’의 내용

77) 문법 요소는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78) ()는 따로 제시된 문법 요소가 아니라 앞의 문법 요소 설명에 같이 언급된 표현이다.

79) 「재미있는 한국어」, 「이화한국어」

교재	의미	영어 대응어	용례(의미80))
재미 있는 한국어	첨가	.	숙제에다가 시험까지 있어서 정말 죽겠어요. (첨가) 취직 문제에다가 건강까지 이상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첨가) 월급에다가 보너스까지 많이 받아서 기분이 날아갈 듯하다. (첨가)
연세 한국어	일정 위치	in, on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세요. (일정 위치) 택시에다가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일정 위치)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어요. (일정 위치) 국에다가 해물을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첨가)
이화 한국어	첨가	.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상여금도 나온대요. (첨가)

‘-에다가’를 초급에서 제시한 「연세 한국어」는 ‘-에다가’를 “a noun to show a target spot or a space of an action(행동의 도달점이 되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고 하여 ‘일정 위치’의 의미로만 제시되고 예문들도 대부분 같은 의미를 가진 용례들이었으나 교재의 본문에는 ‘국에다가 해물을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라고 ‘첨가’의 의미로 쓰인 용례도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에다가’는 ‘-에’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도 하였다. 중급 교재에 ‘-에다가 -까지’로 제시한 「이화한국어」는 ‘-에다가’를 “a noun indicating something more has been added in addition to the previous noun(이전의 명사에 뭔가 더 더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인다고 하여 ‘첨가’의 의미로 제시하였으며 그 용례들 또한 ‘첨가’의 의미뿐이었다. 그리고 중급 단계에 제시한 「이화한국어」도 “이미 일어난 사실이나 상황에 또 다른 사실이나 상황이 덧붙여짐을 나타낸다”는 ‘첨가’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에다가’를 초·중급

80) 용례의 의미는 연구자의 ‘-에다가’의 의미 분류 항목에 따른 것이다.

단계에서 제시하며 초급 교재에서는 ‘일정 위치’, 중급 교재에서는 ‘첨가’의 의미로 제시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조사 ‘-에다가’의 문법·의미 설명 및 영어 대응어를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에다가’의 교육 현황을 간접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사 ‘-에다가’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에, -에다, -다가’와 함께 초급에서 가르쳐야 할 조사로 분류해 놓은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한국어 교재에서 ‘-에’와 ‘-다가’는 초급 과정에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의미별로 ‘-에’가 제시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2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조사 ‘-에다가’는 ‘-에(다)’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조사이기는 하나 ‘-에’의 일부 의미만이 ‘-에다가’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에’와는 별도로 ‘-에다가’가 교재에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에다가’는 그 의미도 다양하고 의미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한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초급 또는 중급 교재에 한 번만 제시된다는 점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다가’는 교재별로 제시된 등급이나 형태·의미가 상이하였으며 제시된 의미도 한 가지씩 뿐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어 학습자들이 ‘-에다가’의 의미와 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더군다나 8종 사전 모두에서 기술하거나 7종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한 의미 항목인 ‘첨가’와 ‘일정 위치’조차도 각각 「재미있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에 하나씩만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 ‘-에다가’의 의미별 다양한 영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 버전의 교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대응 표현은 「연세 한국어」에서만 제시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전치사 in과 on만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제시된 ‘-에다가’의 의미 자체가 ‘일정 위치’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다가’의 고빈도 의미 항목은 ‘일정 위치’ 외에도 3가지 이상이 있고 이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외에도 이동, 목적, 강조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접속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다양한 대응 표현들로 ‘-에다가’의 의미를 영어권 학습

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할 것이다.

교재에 제시된 문법·의미 설명이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교재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족한 설명을 교사에게 기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제대로 된 교재 없이 학습자의 모국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만족할 만한 교수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발견점

본 연구는 대조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의미를 분류하고 그 의미별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조사 ‘-에다가’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2장에서는 8종 사전과 말뭉치를 분석하여 ‘-에다가’의 의미를 분류하였다. 8종 사전에 제시된 ‘-에다가’의 고빈도 의미 항목은 ‘첨가’, ‘일정 위치’, ‘나열’, ‘도구/수단’으로 나타났으며 구어와 문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일정 위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와는 현격한 차이를 내며 ‘(추상적) 도달점’, ‘첨가’, ‘나열’의 의미 항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다가’를 접속 조사로도 보는 최근의 연구를 이어 받아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서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처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올 때 반드시 타동사가 함께 쓰이며, 이 때 ‘-에다가’의 의미 항목은 대부분 ‘일정 위치’이나 추상적인 ‘도달점’을 나타냈다. 또한 선행사가 처소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서술어에 자동사·타동사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이때의 ‘-에다가’는 ‘첨가’를 의미했다. 이 외에도 ‘-에다가’의 ‘-다가’에 남아 있는 성질로 인하여 ‘기준점 강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에다가’는 형용사와의 사용을 금하고, 한 문장 내에서 ‘-에다가’의 중출사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또한 부사격 조사 ‘-에다가’는 ‘-에, -에다’로 대체 가능하였다.

접속 조사 ‘-에다가’는 <에다가, 에다가> 또는 <에다가, 보조사>형태의 문장을 형성하지만, 서술어가 ‘-이다’일 경우에 한하여 <에다가, ∅>형태의 문장도 형성하였다. 문장 내에서 ‘-에다가’의 중출이 가능하며, 접속 조사 ‘-에(다)’로 대체 가능하였다. 또한, 접속 조사 ‘-에다가’의 대표적 의미 항목은 ‘나열’이며 ‘첨가’의 의미도 가짐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4종의 한영사전과 영어 문법서인 Freeman & Murcia(2015)를 분석·검토하여 ‘-에다가’의 의미 기능에 따른 영어 대응 표현을 분석하였다. ‘-에다가’의 의미 기능 중 가장 고빈도를 차지한 ‘일정 위치’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on, at, in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였다. ‘일정 위치’를 나타내면서 의문문 형태로 쓰일 때는 영어의 의문사 where과 what을 대응 표현으로 쓸 수 있으나 where의 경우에는 ‘live(살다)’나 ‘be(있다)’동사와는 함께 쓰일 수 없으며 what의 경우에는 전치사 ‘for’와 함께 쓰인다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추상적) 도달점’을 의미할 때에는 이동, 방향, 목적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to, for로 대체할 수 있었고, ‘첨가’의 의미를 가질 때는 영어에서도 첨가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into와 ‘add A to B(A를 B에다가 더하다)’형태의 to로 대체할 수 있었다. 또한 ‘기준점 강조’를 나타낼 때는 ‘compare A to B(B를 A에다가 비교하다)’형태의 to로 대체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에다가’가 ‘나열’, ‘첨가’의 의미를 갖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는 공통적으로 등위 접속사 and로 대체 가능하였지만 ‘첨가’의 의미일 때는 ‘in addition to/on top of...’ 등의 등위상관접속사구로도 대체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에다가’의 교육 현황을 간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에다가’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에다가’가 제시된 교재에서도 한 가지 용법만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조사 ‘-에다가’의 문법 범주를 정리하고 그 통사·의미 항목별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학계의 논란들을 모아 정리하였으며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용례를 들어 분석·설명하고 ‘에’, ‘에다’와 ‘-에다가’의 관계도 정리하여 앞선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둘째, 교육 분석 자료 측면에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하여 ‘-에다가’의 의미 항목별 영어 대응 표현을 찾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보조 교재의 자료나 수업 시 필요한 문법 설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셋째,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말뭉치를 분석하여 실제 한국인들의 ‘-에다가’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다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영어 대응 표현을 의미별로 구분하여 교수 방안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뭉치의 한계점이다. 대조 분석학적 관점에서 영어 대응 양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영·영한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을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말뭉치에서는 다양한 용례를 찾을 수 없어 한국어 말뭉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조사 ‘-에다가’에 대한 교육 방안만을 제시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조사 교육 방안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에다가’의 실제 교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별도의 연구 과제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에다가’의 교수 방안

조사 ‘-에다가’는 ‘일정 위치’ 외에도 ‘(추상적) 도달점’, ‘첨가’, ‘나열’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보기에 형태는 같으나 의미 기능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점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이러

한 ‘-에다가’의 특징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에다가’의 교육에 적절한 교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교수 방안은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이는 한국어 교재 외에도 한국어 교수자가 수업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교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한국어 관련 8종 사전에 제시된 항목과 말뭉치에 분포된 항목이 제시된 ‘-에다가’의 의미 선정의 근거가 되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교재 다음으로 사전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사전에 등장하는 의미⁸¹⁾들을 분석하여 교수 방안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문법 항목의 배열 기준을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이라고 기술한 김제열(2001)⁸²⁾에서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접하게 될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문법 항목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연구나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 개발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요도 늘고 있고 그들의 학습 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추어 문어 자료인 일반 소설과 아동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이야기, 군대 이야기, 아르바이트 경험 등의 여러 계층의 즉흥적 독백과 강의, 강연 등의 다양한 구어 자료가 들어 있는 말뭉치를 분석하여 ‘-에다가’ 교수 방안 의미 선정 및 배열의 근거로 삼았다.

둘째,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제시 현황이 ‘-에다가’의 제시 순서의 근거가 되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의 문법 목록에서는 몇 급에서 교육하면 좋을 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조사 ‘-에다가’는 초급 교육에 해당하며 그에 해당하는 표현 ‘-ㄴ/은/는 데다가’는 고급 단계 교육에 해당한다는 포괄적인 제시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에다가’의 교육이 몇 급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

81) 김제열(2001:97)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 유용한 체계는 의미와 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82) 김제열(2001:109-110)에서는 문법 항목의 배열 기준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이것을 문법 항목의 의미 배열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고 적절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에, -다가, -에다가’⁸³⁾의 한국어 교재 제시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먼저 ‘-에’와 ‘-다가’의 제시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한국어 교재의 ‘-에’의 제시 단계

교재	제시 단계 ⁸⁴⁾
재미있는 한국어	1급 2과, 4과, 5과, 12과
서울대 한국어	1급 5과
연세 한국어	1급 2과, 5과
이화 한국어	1급 3과, 4과, 5과
열린 한국어	1급 3과, 4과, 5과, 6과

<표 22> 한국어 교재의 ‘-다가’의 제시 단계

교재	제시 단계
재미있는 한국어	3급 2과
서울대 한국어	2급 7과
연세 한국어	2급 5과
이화 한국어	2급 10과
열린 한국어	3급 7과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의 제시 단계를 교재 간 비교하여 보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교재에서 1급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다가’는 교재 간 제시 단계가 2급 5과에서부터 3급 7과까지 초·중급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는 예전부터 기초적인 동사와 함께 쓰이며 ‘장소, 시간, 단위’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격조사⁸⁵⁾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교재에서 초급 초

83) 앞 장에서 언급했다시피 본 연구자는 조사 ‘-에다가’를 ‘-에’+‘-다가’로 보는 의견에 따라 교재에 제시된 ‘-에’, ‘-다가’, ‘-에다가’를 분석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는 ‘-에’, ‘-다가’, ‘-에다가’ 모두 초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84) 제시된 문법 요소는 <표 19> 참고

85) 김제열(2001:115-116)에서도 1급에서 제시해야 할 격조사로 ‘-에’를 선정하였고 ‘-에’와 ‘-에서’를 비교하며 장소의 ‘에’, 출발점의 ‘에서’, 도착점의 ‘에’, 처소의 ‘에서’ 순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문장 발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시간의 ‘에’는 단위

반인 1급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에다가’의 제시 단계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한국어 교재의 ‘-에다가’의 제시 단계

교재	제시 단계 ⁸⁶⁾
재미있는 한국어	4급 7과
연세 한국어	2급 8과
이화 한국어	3급 12과

격조사 ‘-에’와 달리 <표 22>에서 ‘-다가’는 초·중급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에다가’는 <표 23>에서와 같이 제시된 교재의 단계가 모두 제각각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문법 형태도 제각각으로 교재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에’보다는 ‘-다가’가, ‘-다가’보다는 ‘-에다가’가 늦게 제시됨⁸⁷⁾을 알 수 있다. 교재에 나타난 ‘-에, -다가, -에다가’의 제시 단계를 각 교재별로 합산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에’, ‘-다가’와 ‘-에다가’의 평균 제시 단계

문법 항목	평균 제시 단계
-에	1급 5과
-다가	2급 11과
-에다가	3급 9과

위의 표와 같이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평균적으로 조사 ‘-에’는 1급 초반에서, ‘-다가’는 2급 후반에서, ‘-에다가’는 3급 중·후반에서 제시하고 있

의 ‘에’보다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86) 제시된 문법 요소는 <표 19> 참고

87) 열린 한국어에서는 ‘-는 데다가(1과)’를 ‘-다가(7과)’보다 일찍 제시하였다.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현황을 근거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하여 영어 문법서와 4종의 사전에서 추출한 ‘-에다가’의 영어 대응 표현이 용례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먼저 말뭉치 분석에서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가장 고빈도 항목이었던 ‘일정 위치’는 초급 후반에 교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김제열(2001:101-102)에서는 초급인 1급 문법 요소 선정 기준을 기술하면서 의미나 기능이 명백한 것을 다루어야 하며 유사한 기능의 문법 요소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 두 요소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문어적인 표현보다는 구어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다루고 단순문 형성과 관련된 기초적인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일정 위치’는 그 의미나 기능이 명백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의 조사인 ‘-에’는 이미 초급 초반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단순문과 함께 쓰이는 쉬운 의미 기능⁸⁸⁾이기 때문에 초급에서 다루기 적합하다. 영어 대응 표현 또한 at, in, on 등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도 복잡하지 않고 익숙한 형태여서 초급에서 학습하여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초급 후반 단계에서 ‘일정 위치’의 의문 형태와 ‘(추상적)도달점’을 같이 제시하되 ‘(추상적)도달점’에 해당하는 의미 항목을 따로 구분짓지 말고 제시된 예문을 to, for 등 이동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대응시켜 제시해 주기만을 제안한다. ‘처소’를 나타내는 비슷한 의미 항목인 ‘일정 위치’와 ‘(추상적)도달점’을 구분하여 가르치게 되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쉽게 이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⁸⁹⁾. 초급 단계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는 의미 항목만을 알려주고 그 대응 표현인 전치사를 같이 언급해주면서 의문형으로 바뀌면 ‘where~?’이나 ‘what...for?’형태로 대체할 수 있음을 예문을 들어 설명해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영어의 등위접속사로 대응할 수 있는

88) 한송화(2001:105)에서는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쉬운’ 어휘란 단순히 빈도가 높은 어휘가 아니라 언어보편적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나 일상 생활에 쓰이는 어휘이며,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 어휘여야 한다고 하였다.

89) 박지영 외(2015:109)에서는 언어 교실에서는 한 문법 항목을 분석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다른 문법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항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첨가’와 ‘나열’은 중급 초반에 교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나열’은 같은 조건의 어휘들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라 초급의 학습자들에게도 어려운 항목은 아니나 동일 형태의 다른 의미 항목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므로 의미 항목을 두세 가지로 나누어 따로 교수하는 것이 좋다⁹⁰⁾. 또한 ‘첨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등위접속사뿐만 아니라 add A to B 형태의 전치사 to와 on top of, in addition to 등의 상관접속사로 대응되는 예문들을 같이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에다가’의 ‘첨가’의 의미는 국어 문법에서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그 품사 범주가 다르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학습자들의 문장 생성과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이들의 문장 구조 상 기능이 동일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을 동일 범주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한송화, 2006:359)⁹¹⁾.

그리고 ‘-에다가’의 의미 항목 중 ‘기준점 강조’는 중급 후반이나 고급 초반에 교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에다가’의 의미 항목들과 그 기능이 다르고 compare A to B 형태의 전치사 to만을 대응 표현으로 갖는 한계가 있으며 비유의 기준이 되는 체언을 강조하는 것이라 난이도가 높다.

이상 세 가지의 논의를 근거로 ‘-에다가’의 교수 방안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내었다.

<표 25> ‘-에다가’의 교수 방안

급수	의미	영어표현	용례
초급 후반			책상 <u>위에다가</u> 놓아 주세요.

90) 김제열(2001:98)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 문법 연구에서 섬세하게 분류된 범주 구분과 어렵고 추상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새로운 문법 범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91) 한송화(2006:359)에서는 이를 기능문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능문법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문법 구조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가에 따라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능문법에서 문법은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 언어의 구조를 분석해 놓은 것으로 문법 구조보다는 문법 구조의 기능과 맥락 속에서 그 기능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일정 위치 (추상 적) 도달점	at, in, on, onto, into, ... /Where, What ... for /to, for,...	Please put it <u>on (top of)</u> the desk. <u>이곳에다가</u>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Don't dump trash <u>in</u> this area. 내가 어제 사진을 <u>홈페이지에다가</u> 올렸어. I uploaded the photo <u>onto my hp</u> yesterday. <u>어디에다가</u> 놓을까요? <u>Where</u> shall I put it? <u>무엇에다가</u> 쓰니? <u>What</u> is it used <u>for</u>? 사실 내가 <u>학교에다가</u> 얘기했어. To tell the truth, I told it <u>to the school</u>.
중급 초반	첨가 /나열	and, on top of, in addition to, into, to / and	그녀는 <u>교수에다가</u> 인기 연기자예요. She is <u>a professor and</u> big star. 그는 이번 달에 <u>급여에다가</u> 수당도 받는다. He gets commission <u>on top of</u> his salary. 그 주정뱅이 할배가 <u>고양이 사료에다가</u> 약을 섞었다. The old drunk put drugs <u>into the</u> cat food. 술이 독하면 <u>거기에다가</u> 얼음을 넣어서 드세요. <u>Add</u> some ice <u>to it</u> if the booze is strong. 그는 <u>가수에다가</u> <u>영화배우에다가</u> 예능인이다. He is <u>a singer, actor, and</u> entertainer.
중급 후반	기준점 강조	to	셰익스피어는 세상을 <u>무대에다가</u> 비유했다. Shakespeare <u>compared</u> the world <u>to a stage</u>. 흔히들 착한 사람을 <u>양에다가</u> 비유한다. Good-natured people are often <u>compared to</u> <u>sheep</u>.

위의 <표 25>에서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항목인

조사를 교육할 때에는 한 가지 의미 기능만을 집중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의미별 기능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미 설명과 용례를 제시함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응되는 표현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되, 노출되는 메타언어⁹²⁾에도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단계에 알맞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92) 한송화(2010: 189-190)에서는 메타언어란 언어를 설명하는 도구적 언어이며 언어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상위언어, 즉 매개 언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를 설명하는 어휘 사전, 문법 사전은 물론이고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설명하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메타언어라고 하였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강현화, 신자영, 이재성, 임효상(2003), 「대조분석론-한국어·스페인어 문형 대조를 바탕으로」, 도서출판 역락
- 강현화, 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곽지영, 김미옥, 김제열, 손성희, 전나영, 정희정, 조현선, 한상미, 한송화, 황인교(2015),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중섭 외,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 백봉자(2013), 「한국어 문법 어떻게 가르치는가?」, (주)도서출판 하우
- 서상규(2015),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 1(찾기순)」, 한국문화사
- 서상규(2015),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 2(가나다순)」, 한국문화사
- 우형식(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이익섭(2005),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자, 이종희(1998), 「(사전식)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 정형정(2013), 「전치사쇼크」, 도서출판 쇼크잉글리쉬
- 허용,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황화상(2012), 「국어 조사의 문법」, 지식과교양
- H. Douglas Brown(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if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ongman, 이홍수, 박주경, 이병민, 이소영, 최연희, 차경환, 이성희 공역,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제5판,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Diane Larsen-Freeman, Marianne Celce-Murcia(2015), The Grammar Book: Form, Meaning, and Use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Third Edition, Boston, MA: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Heinle, Cengage Learning

2. 논문

- 강현화(201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자료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Vol.- No.17
- 김문웅(1982), 「‘-다가’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Vol.- No.176
- 김소연, 천승미(2014), 「영어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접속 조사 용법 연구」, 외국학연구 제 30집
- 김영희(1975), 「‘-다-아서’에서 ‘다가’까지」, 연세어문학 Vol.6, 83-108
- 김정숙, 남기춘(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이/가’와 ‘-은/는’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Vol.13 No.1
- 김제열(2001), 「한국어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Vol.12 No.1
- 노금송(2008), 「한국어 조사 오류 양상과 조사 교육 방안」,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제 6호
- 민선영(2013), 「한국어 조사 ‘의’의 영어 대응 양상 연구-한영·영한 병렬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새국어교육 제 82호
- 백낙천(1996), 「‘(-)다가’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Vol.8
- 서상규, 유현경, 남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Vol.13 No.1
- 成洛秀(1976), 「접속사 [다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Vol.7-8
- 예선희(2015), 「우리말 ‘격조사+다가’ 구문의 문법화」, 현대문법연구 Vol.86
- 우인혜(2003), 「영·일 학습자의 조사 교육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 22호
- 유경화(2013),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연구」, 어문학 Vol.120, 31-54
- 유현경, 양수향, 안예리(2007), 「영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방안 연구-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Vol.34
- 이규호(2006),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글 Vol.37, 171-195
- 이숙(2009), 「한영 대조 분석-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語文學論叢 Vol.28
- 이은경(199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1998), 「현대국어의 접속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규, 고예진(2013),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에’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연구」, 語文論集 Vol.56

- 임채훈(2002), 「국어 복합사건 단문의 의미 연구-‘NP₁가 NP₂를 NP₃에다가 V’ 구문을 중심으로-」, 高鳳論集 第31輯
- 장미경(2008), 「영어권 고급 학습자들의 조사 오류 분석-말하기 과제 수행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8차 국제학술대회
- 張會見(2015), 「명사에 후행하는 ‘조사+다가’구성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사 연구 제 20호
- 전후민(2014), 「{다가}의 변천사」, 우리말글 Vol.63, 29-68
- 한명숙(2015), 「영어 화자가 생성한 한국어 문장의 조사 오류 사례와 한국어교육의 과제」, 새국어교육 제 103호
- 한송화(2001), 「말뭉치와 학습자 오류를 이용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사전의 의미 기술」, 한국어정보학 제 4집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형식 문법에서 기능 문법으로-」, 한국어교육 Vol.17 No.3
- 한송화(2010), 「한국어 문법교육에서의 메타언어의 문제-문법용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는문집 제 20차

3. 자료(한국어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4), 「재미있는 한국어 1」,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4), 「재미있는 한국어 3」,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4), 「재미있는 한국어 4」, 교보문고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4), 「서울대 한국어 1A」,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4), 「서울대 한국어 2A」,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3), 「연세 한국어 1-1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3), 「연세 한국어 2-1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3), 「연세 한국어 2-2 (English Version)」,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 1-1 (English Version)」,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 2-2 (English Version)」,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 3-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2013), 「열린 한국어 초급1」, 하우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2013), 「열린 한국어 중급1」, 하우

4. 자료(사전)

(주)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0),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주)두산동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하~ㅇ)」,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용법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능률사전편찬연구소(2006), 「ET-house 능률한영사전」, 능률교육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0), 「(Dong-A's) P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4th Edition)」, 두산동아
민중서림편집국(2014), 「옛센스 영한사전[특장판]」, 민중서림
민중서림편집국(2016), 「옛센스 한영사전」, 민중서림
백봉자(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삼성서관 편집부(2005), 「현대한영사전」, 삼성서관
삼성출판사 편집부(1987), 「삼성 옥스퍼드 영한대사전(Volume I)」, 주식회사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편집부(1987), 「삼성 옥스퍼드 영한대사전(Volume II)」, 주식회사 삼성출판사
서상규, 백봉자, 강현화, 김홍범, 남길임, 유현경, 정희정, 한송화, 홍재성(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0),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이희승(2007),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이희자, 이종희(2006),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Pearson Longman(2009), 「NeungYule Longman English-Korean Dictionary」, 능률교육

5. 자료(기타)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 <http://kkma.snu.ac.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